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471.17 (-398.66)	824.46 (-9.74)		
↓ 금리 (국고채 9년)	↓ 환율 (한-달러)		
3.810 (-0.037)	1398.80 (-13.00)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

총 발행주의 3.3%, 3개월간 소각
3년 누적 FCF 50% 주주에 환원
삼성전자, 매년 9.8조 정규배당 등
환원 확대방안 마련, 3분기 공개
주주운동본부, 기자회견 열고
삼전 170조, 하닉 100조 환원 요구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현금이
불어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40
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고 환
원 기준까지 높은 가운데 삼성전자도 특
별배당을 포함한 올해 환원 방안과 차기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날 주주단체도 양
사에 총 270조원 이상의 환원을 요구함에
따라 양사의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이
익의 배분 이슈가 전례없는 관심사가 되
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
날 이사회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자기주
식을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종가인 주당 166만2000원 기준
2407만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약 3.3%
다. 오는 20일부터 약 3개월간 장내에서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한다. 국내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한다. 2025~
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범위 내'였던 기존 기준을 '50% 이
상'으로 높이고 자사주 취득·소각과 현금
배당을 병행한다. 특별배당 등 배당 확대
도 검토한다.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은 3
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한다.



왕이 中 외교부장 ‘韓 정세 논의’ 입국

왕이 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 19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확대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현행 2024~2026년 정책은 3
년간 발생한 FCF의 50%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매년 약 9조8000억원을 정규
배당하는 구조다. 올해 정책 종료로 앞두
고 특별배당을 포함한 올해 환원 방안과
차기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주주 측도 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
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경기
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
성전자에 170조원 이상, SK하이닉스에
100조원 이상의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양
사의 경영성과 연동 성과급에 대해서도
이익처분에 해당해 주주총회 결의가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삼성전자170조원, SK하이닉스100조원의
환원은요구의 시작점”이라며 “성과 보상은
주주총회의 승인 아래 얼마든지 가능하
지만 우리가 막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주인의
동의 없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지난달 전영현·노태문 삼성전
자 대표이사와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근거로 제
시한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은 삼성전자O
PI(초과이익성과급)의 평균임금상 임금
성을 부정했지만 성과급 지급의 주총 결
의 필요 여부나 배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
았다.
삼성전자의 특별경영성과급은 지난 5

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아래
추가 교섭을 거쳐 노사가 합의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현금창출력이 커지면서
설비투자자 임직원 보상에 이어 주주환
원까지 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
되는 양상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
O)는 지난달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를
에서 “현재 이사회와 경영진은 특별배당
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차기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믿고 기다려주시
주주 여러분께 곧 공유드리
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기준금리 인상 한 달… 장기채 금리 폭등 ‘시장긴축’ 돌입

국고채 3년물 금리 사실상 제자리
10년물 8.5bp, 30년물 28.3bp ↑
물가·통화 불확실성·주식호황 등 요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75%인데 국고
채 10년물 금리가 4.4%에 육박해 장기 시장
금리 경로에서 이른바 ‘시장 긴축’이 먼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2면>
장기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시장 긴
축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부담을 키
우지만, 성장률 상향과 물가 상승, 가계
부채 확대는 긴축 기조를 접기도 어렵
게 만든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금융통
화위원회를 앞둔 한은의 선택이 한층
복잡해졌다.
◆ 3년물 제자리인데 30년물은 28.3bp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고
채 3년물 최종호가 수익률은 연 3.847%
를 기록했다. 10년물은 4.382%, 30년물

은 4.751%까지 올라갔다. 30년물은 역대
최고치다. 이날 장중에는 전날 급등분을
일부 되돌렸지만 10년물은 여전히 4.3%
대 중반에서 거래됐다.
만기별 흐름을 보면 장기금리 상승이
더 뚜렷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2.50%
에서 2.75%로 올린 지난달 16일과 비교
하면 국고채 3년물은 3.848%에서 3.
847%로 사실상 제자리다. 반면 같은 기
간 10년물은 8.5bp(1bp=0.01%포인트),
30년물은 28.3bp 뛰었다.
이 같은 시장금리 상승은 다음 기준금
리 인상에 대한 기대만으로 설명하기 어
렵다는 의미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크게 오르면서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물
가와 재정 불확실성을 장기간 떠안는 것
과 국채 수급, 해외 장기금리 상승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도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
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구성된 최근에는
기간 프리미엄이 상당폭 상승했다고 분
석했다. 물가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국
고채 발행 확대,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
금 이동,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 변화 등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대외 여건도 국내 장기금리를 밀어 올
리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30년 만기 국
채금리는 장중 5.327%까지 올라(채권값
하락)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10년물도 4.739%까지 상
승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
른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제 발행 확대가 장기물 수급 부담 요인
으로 거론됐다.
미 국제금리는 글로벌 장기금리의 기
준 역할을 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도 해외 투자자에게 그만큼 높은 금
리를 제시해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유
지할 수 있다.
◆ 가계빚 2000조·성장률 3.2%
장기금리 급등이 곧바로 기준금리 동
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한은
이 발표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
을 넘어섰다. 전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다.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대출이 함께 증
가했다. 한은은 특히 기타대출 증가에 주
식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했다. 가계신용 통계의 기준 시점은 6월
이므로, 7월 기준금리 인상과 8월 장기금
리 급등이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이번 수치에 나타나
지 않았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美 반도체주 급락에 코스피 5.80% 폭락

코스피가 검은 수요일을 연출했다. 미
국 반도체주가 급락한 가운데 중동 긴장
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
벌 국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 붙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
피는 5.80% 내린 6471.17에 거래를 마감
했다. 오전 한 때 낙폭이 커지면서 프로그
램 매도가 일시 중단되는 매도 사이드카
가 발동됐다. 올해 코스피에서 발동된 25
번째 매도 사이드카다.
코스닥은 1.17% 하락한 824.46으로 마
감했다.
국내 증시의 약세는 전날 미국 반도체주
가 줄줄이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
일(현지시간) 미국 다우존스와 S&P500은
각각 0.22%, 0.69% 하락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33% 떨어졌는데, 특히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키웠다. 마이크론(-
7.02%), 인텔(-6.58%), ADR(-4.07%) 등
미국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SK
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9.
20% 폭락했다. 이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
수는 4.98%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398.66 하락 6471.17 마감
매도 사이드카 발동… 올해 25번째
삼전 7%대, 하이닉스 9%대 하락
환율 10개월여 만에 1300원대 마감

미국발 약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는 각각 7.82%, 9.75% 하락한 24만
7500원, 15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란의 협상이 성과 없이 시한을
넘긴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이란은 미
국과의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분쟁의
완전한 종식을 원한다고 아바스 아라그
치 이란 외교장관이 18일(현지시간) 밝혔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란
을 향해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고
압박하며 긴장감을 키웠다.

중동 위험 고조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날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65% 오르며 배럴당 91.02달러를 기록
했고,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며 미 30년물
국제금리는 이날 장중 5.33%까지 치솟았
다.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
다. 이날 일본 10년물 국제금리도 장중 연
2.945%까지 오르며 30년 만에 최고 수준
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
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97.7원으로 마
감했다. 환율 1400원이 깨진 것은 작년 10
월 2일(1399.5원) 이후 10개월 만이다.
환율 하락은 연준의 9월 인상 기대 약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수출업체들도 달러
매도 물량을 출화하면서 달
러 하락 압력을 가하는 모양
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노경필 “대법원장에 제청권…대통령은 임명권
행사하면 돼” /사진 뉴시스
▲‘1심 무죄’尹 위증혐의 2심 내달 16일 선고…벌
금 1000만원 구형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정치
관여’ 유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생태공원 조성…친환
경 산단 구상

▲오세훈 “서울 출생아 26개월 연속 증가…반등
흐름 더 키울 것”
▲수시 원서접수 3주앞…수험생 10명중 9명 “지
원대학 다 못 정해”

주택거래 늘자 가계빚 ‘깡충’ 2분기 2019.8조… 역대최대

가계대출잔액 전분기 대비 24.9조 ↑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
주택관련 12.2조·기타 12.8조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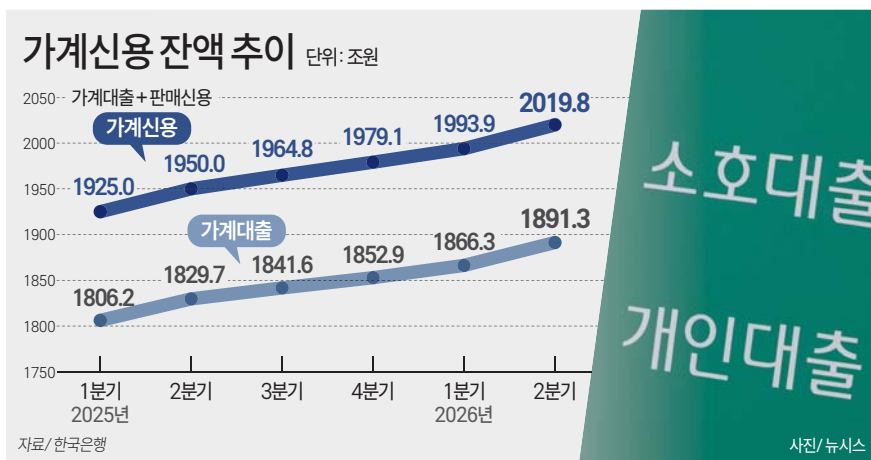
올해 2분기 가계빚이 26조원 가까이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 거래 증가로 주택관련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영끌’과 ‘빚투’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분기증가액은 지난 1분기(14조8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 확대됐다. 2021년 3분기 34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9조8000억원(3.6%) 늘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판매신용을 합친 것으로, 가계부채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4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1분기 13조4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며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담대출 등을 합한 주택관련 대출이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1분기 8조1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커졌다. 한은은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2조8000억원 늘어 주택관련대출 증가액을 웃돌았다. 기타대출 증가폭도 1분기 5조4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커지며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증가가 주된 배경으로 꼽혔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13조3000억원 늘었다. 1분기 2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예금은행 주택관련 대출이 6조8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

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10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전체 증가폭도 1분기 8조2000억원보다 줄었다. 보험사와 증권사, 공적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8조6000억원 늘어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카드 이용액 등 판매신용 잔액은 12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1분기 1조4000억원보다 줄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204조7000억원에서 208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한화에어로스페이스, 美 방산시장 문 열었다

美 육군 'K9 차륜형 자주포' 공급 계약
2.6억불 규모… 후속 양산사업 가능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무기체계 최초로 미 육군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K9 자주포의 미국 시장 진출 길을 열었다. 차륜형 K9 시제품 6문 공급을 시작으로 최대 4년간 미군 요구에 맞춰 성능과 세부 사양을 보완하고 후속 양산 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 'K9MH(K9 Mobile Howitzer)'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향후 4년간 추가 12대를 옵션으로 인도하며 전체 계약규모는 2억6200만달러(약 3700억원)이다.

이번 수주로 지난 1950년 6·25전쟁 당시 미국이 대한민국에 포병전력을 지원한 후 76년 만에 대한민국이 역으로 미국의 포병전력 및 방산 기반 재건을 지원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뤘다. 특히 미 방산스 타트업 안두릴과 오시코시디펜스 등이 참여한 엘빗 아메리카를 비롯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독일 라인메탈 등 글로벌 방산 대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시제품 공급 이후 미 육군의 작전운용개념에 맞춰 K9MH를 개량할 예정이다. 향후 최대 4년간 성능 보완과 운용 평가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결함이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양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K9 차륜형 자주포(K9MH).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번 계약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미국 네트워크와 '사업보국' 철학을 토대로 추진해 온 글로벌 방산사업의 성과다. 김 회장은 방산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간산업으로 보고 지속적인 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출산업 육성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경영 기조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의 선제적인 사업 대응으로 이어졌다. 미 육군은 2020년대 초부터 58구경장 화포를 탑재한 케도형 자주포 개발사업(ERCA)을 추진했지만 국제 정세 변화로 병력의 장거리 전개 수요가 늘면서 기동성이 높은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차륜형 자주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해 미군 사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3월 미 육군 예산안에서 차륜형 자주포 관련 사업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K9MH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과 수주 과정에서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정부와의 공조가 뒷받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사청은 사업 초기부터 계약 체결까지 주요 현안을 수시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했으며 수주를 앞둔 최종 단계에서도 신속한 협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후속 양산 사업에 대비해 미국 내 생산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앨라배마주 오펜라키의 유휴 공장을 3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지 자주포 공급망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K9 자주포가 세계 최대 방산시장에 진입한 의미 있는 성과이자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미국을 지키는 한미동맹의 새 역사를 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편희 기자 whk@



metro

구윤철 “대미투자 1호 사업후보 ‘에너지 부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자본·외환시장 제도 개선 상황 등 공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호 사업 후보로 ‘에너지 부문’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미국의 노하우와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에너지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공지능(AI) 시대로 가려면 에너지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이 미국의 노하우와 결합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은 조선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바이오와 공급망, 핵심광물, AI도 중요한 협력 분야라고 언급했다.

그는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 미국 정부와 차근차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암참이 지난 4월 한국 정부에 전달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특별보고서에 이은 후속 정책 대화로 마련됐다.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 및 AI 협력 방안,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미국 기업의 역할 등이 이날 의제로 올랐다.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출범하면서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장은 한국 경제가 이뤄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투자와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적기”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른바 ‘3·4·5비전’과 자본·외환시장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등도 공유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불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는 정부가 자본시장을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법 개정과 세계국채지수 단계적 편입 등을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체제 전환을 언급하고, 내년 1월에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고 외국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KDI, 경제전망 대폭 상향… “3.2% 성장”

“0.7%p 조정 대부분은 반도체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과 관련 설비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KDI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2026년 8월)’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7%포인트(p) 올린 3.2%로 제시했다. 이전 전망은 지난 5월의 2.5%였다.

KDI의 김미루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0.7%p 상향 조정분 가운데 대략 0.6%p는 반도체와 반도체 파급에 의한 상승으로 보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0.1%p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뿐 아니라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와 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다.

김 부장은 전체 성장률 3.2%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체 GDP에서 반도체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닌, 지난해 대비 늘어나는 성장분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올해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4.

6%에서 8.7%로 4.1%p 상향 조정됐다.

상품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호조에 힘입어 8.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3%에서 7.9%로 4.6%p 높였다.

보고서는 지난 5월 이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시장 전망이 급격히 개선된 데다 예상보다 양호했던 2분기 GDP 실적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3597억 달러 흑자로 기존 전망보다 1207억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만 19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으로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을 뜻하는 교역조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도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그러나 증가한 소득은 가계 전반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2%에서 2.3%로 0.1%p 소폭 올라가는데 그쳤다.

김 부장은 “반도체 성과가 상당히 집중돼 있어 체감경기는 성장률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은 대기업이고 국민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문에서 일하는데 그쪽 영향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취업자수 증가 전망의 경우, 종전의 17만 명 관측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적게 잡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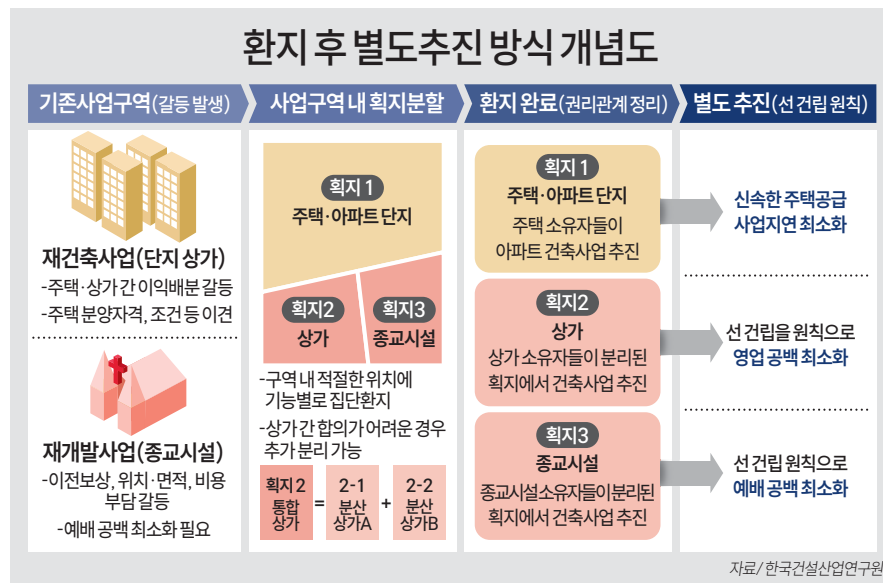
재건축 속도전 발목 잡는 상가·교회… 해법은 ‘제도 정비’

서초진흥 16년·장위10구역 17년 표류 분양·보상 둘러싼 이해충돌 장기화 상가·종교시설 관리처분 기준 미비 대법원 판결도 엇갈려 현장 혼선 건산연 “핵심 쟁점 법령에 명확히” 수도권 23만4000호 착공 차질 우려

부동산 정비사업에서 갈등 요소가 되는 상가나 종교시설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을 선언했지만 상가나 종교시설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로 길게는 20년까지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많아서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은 상가 소유자와의 협상 난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후 16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방배6구역과 신반포2차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에도 상가와의 소송전으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교회와의 협의가 결렬됨이 되면서 사업이 17년이나 표류했고,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은 교회 3곳과의 보상 갈등으로 철거공



사 중단과 소송전을 겪어야 했다.

이태희 건산연 연구위원은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과 사업 지연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에서는 주로 주택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재개발사업에서는 종교시설과 관련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관련 갈등은 주로

주택분양 자격 부여나 조건 등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의 상가 소유자는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길 원한다. 반면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아파트는 아파트, 상가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세밀한 규율

이 법령에 없다.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시설과 관련한 갈등은 주로 관리처분 과정에서 종전 종교시설의 가치 산정과 새롭게 지어지는 종교시설 및 임시 종교활동 공간을 놓고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에서는 종교시설의 관리처분 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했지만 행정 내부의 처리기준에 가까워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 사이의 사법상 권리 의무를 직접 확정하는 법규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원 판결 간에도 충돌이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에서조차 상가 분양을 포기한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관 개정 등에 대해 전원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단지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이 위원은 “상가나 종교시설과의 갈등에 따른 피해는 단순히 해당 구역의 토지

등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택공급도 지연된다”며 “해당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역 제척이나 토지분할이 주로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두 갈등 모두 상당 부분 제도 미비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간 협상에만 맡겨진 핵심 쟁점의 처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하고, 통합개발이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유인을 설계해야 한다”며 “합의가 끝내 어려운 경우를 위한 형평성 있고 도시계획적으로도 바람직한 출구를 함께 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4000호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 1조 손실 넘어 하반기 경영 ‘비상’

41일 만에 임금협상 재개도 결렬 내일 8시간 전면파업·상경투쟁 정년 65세 연장·해고자 복직 쟁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이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노사가 40여 일 만에 임금 협상을 재개했지만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미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로 1조 원 이상의 매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면 파업까지 현실화하면서 현대차의 하반기 경영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18일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19~25일 주말을 제외하고 닷새간 추가 파업을 진행한다. 19~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 뒤 21일에는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선다. 24~25일에도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21일에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상경 투쟁도 진행한다.

쟁점은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이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해 최장 만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년 연장은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 노조는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완전 월급제



지난달 20일 오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조기 퇴근을 하고 있다. /뉴스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신규 인원 총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 장기화로 실적과 브랜드 경쟁력 악화에 직면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반기 생산 확대와 신차 및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차 출시 초기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판매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로 이미 생산 차질이 4만2000여대, 매출 손실이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전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협상 결렬이 반복될수록 노사 갈등의 비용이 기업을 넘어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신차 효과와 생산 확대라는 하반기 전략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LG 에너지솔루션

LANSING

2026년 8월, 미시간 랜싱 공장 준공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 최초로 북미 8개 생산 거점을 구축하며 글로벌 생산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실제 랜싱 공장들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GS25 매장 앞에서 직원들이 하트를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국내 슈퍼마켓 점포수 1위인 GS더프레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확대해 몸집을 키웠다.

/GS리테일

‘편의점·슈퍼·홈쇼핑’ 내실화... 2028년 영업이익 3800억 목표

32 GS리테일



GS리테일이 무분별한 외형 확장 경쟁에서 벗어나 본업 경쟁력 강화와 비핵심 자산 정리를 양 축으로 하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편의점, 슈퍼마켓, 홈쇼핑 등 3대 핵심 사업의 내실을 다져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과거 투자 실패로 훼손된 자본 효율성을 끌어올려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이러한 구조 혁신을 발판 삼아 오는 2028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38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실적 반등의 신호탄은 이미 가시화했다. GS리테일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1751억원, 영업이익 109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27.5% 증가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당기순이익은 646억원으로 무려 354.5% 급증했다. 통상 800억~900억원대에 머물던 분기 영업이익이 11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서며 기초체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2분기 매출 3.1조, 영업이익 1094억
당기순이익 646억, 전년비 355%↑

편의점 GS25, 질적 성장... 실적 견인
저수익 점포 정리, 우량 상권 이동
신선강화형 매장으로 수익성 개선

실적 반등을 견인한 핵심 축은 주력 사업인 편의점 GS25의 질적 성장이었다. GS25의 2분기 매출은 2조3844억원으로 7.1%, 영업이익은 714억원으로 21.0% 늘었다. 지난해 취임한 오너 경영인 허서홍 대표의 지휘 아래 단순 점포 수 늘리기 경쟁을 지양하고 저수익 부진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는 대신 우량 상권으로 점포를 이전·확장하는 ‘스크랩 앤 빌드(Scrap & Build)’ 전략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다. 단기적인 점포 순증 둔화를 감수하면서 점포당 생산성과 가맹점 수익성에 집중한 판단이 주효했다. 이에 힘입어 2분기 GS25 기존점 일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했다.

신선식품 경쟁력을 극대화한 ‘신선강화형 매장(FCS)’도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채소, 과일, 축산, 수산 등 신선식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GS리테일이 외형 확장 위주의 출점 경쟁에서 벗어나 본업의 점포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비핵심 자산을 정비하는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이미지.



GS샵 ‘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사업’ 녹화 현장 사진

/GS샵

라인업을 강화해 편의점을 근거리 정보기 플랫폼으로 변모시킨 이 매장은 2023년 말 253개에서 최근 1000개까지 확대됐다. 신선강화형의 하루 평균 매출은 약 280만원으로 일반 점포 대비 100만원 이상 높아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있다. 경기도 화성 센터의 ‘편의점 신선허브’와 슈퍼마켓 부문인 GS더프레시의 산지 소싱 역량을 연계해 상품 신선도를 높이고 원가 절감 효과까지 거뒀다.

슈퍼마켓과 홈쇼핑 사업부역시 견조한 실적으로 힘을 보탰다.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가맹점 중심의 출점과 도심 핵심 상권 맞춤형 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2분기 매출 4698억원, 영업이익 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72.2% 급증했다. 홈쇼핑 GS샵도 PB 및 단독 상품 강화와 수익성 중심 채널 운영을 통해 매출 2682억원, 영업이익 267억원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사업 부문 간 경계를 허무는 유기적 결합 전략도 시너지를 발휘했다. 2030세대가 중심인 편의점, 중년층 정보기 비중이 높은 슈퍼마켓, 장년층 고객 기반이 두터

운 홈쇼핑을 하나로 묶는 통합 생태계 구축이 결실을 맺고 있다. 통합 멤버십 ‘GS ALL 멤버십’ 회원은 2379만명으로 늘었고, 간편결제 ‘GS페이’ 이용자도 707만명을 돌파했다. GS샵과 GS더프레시의 교차 구매를 유도한 ‘15Days’ 프로모션 결제액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고객 접점을 넓히며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안착시켰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2026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을 공시하며 2028년 영업이익 3800억원 달성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는 2025년 예상치 대비 30% 이상 증가한 목표치로, 일각에서는 실적 개선 흐름에 따라 4000억원 달성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이번 밸류업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안정적인 주가 저평가 해소다. 현재 GS리테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배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는 2021년 GS홈쇼핑 합병 당시 자기자본이 1조원가량 늘어난 반면, 메란티 펀드, 요기요(위대한상상), 쿠팡 등 과거 투자 자산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깎아

먹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본업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늘었음에도 지분법손실만 1019억원이 반영되며 순이익을 잠식했다.

이에 회사는 부실 펀드 및 비핵심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비효율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산 정리를 통해 확보한 현금과 부채 감축과 성장 사업 투자, 그리고 총주주수익률(TSR) 관점의 주주환원에 배분할 방침이다. 실물 자산 및 재무 구조 효율화가 본격화되면서 부채비율은 2024년 말 138%에서 2025년 말 128%로 10%포인트 개선됐다. 지난해 배당 총액 역시 501억원으로 20% 늘어나는 등 주주환원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GS더프레시·GS샵도 성장세
통합 멤버십으로 고객 접점 확대

GS리테일 PER, 0.5배 안팎 머물러
부실 펀드·비핵심 자산 단계적 매각
현금 확보해 투자·주주환원 배분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한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수요 예측과 자동 발주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홈쇼핑에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와 AI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을 꾀한다.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 소통 담당 이사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GS리테일의 체질 개선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점포 수 확대라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서 탈피해 기존점 성장을 반등과 자본 재배치라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과거 비핵심 투자자산 정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본업의 수익성 개선이 ROE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 지속된 기업가치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며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균형 있게 높이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대한민국 철인3종! 이제 나를 보여줄 시간

대한민국 철인3종 국가대표팀의 도전, 신한이 함께합니다



신한은 대한민국 철인3종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철인3종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 위해 꺼낸 용산공원 주택... 정치권 ‘찬반 격돌’

국회 국토위, 부동산 대책 회의
녹지 가능 상실지역에 주택공급 검토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당정이 19일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서울 집값 급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으로 짜늘하게 식은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대해선 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본회의 처리를 앞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캠핑(전 주한미군 주둔 부지)과 관련해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게 현재(본회의에) 올라간 법’이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나머지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기존 4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고, 캠핑캠 공급물량도 1100호에서 2500호로 늘렸다. 이번 8·13 공급대책에선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회 용산국제업무지구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등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용산

어린이정원이나 용산공원 일부 지역의 녹지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난개발과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 인터뷰에 출연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 큰 땅을 다공원으로 한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치안 문제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공공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실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 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어버리고 주택을 짓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 문제는 보존해야 할 녹지에 손을 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서 일정하게 훼손이 돼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의와 공론화 과정과 맞물려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7월에 제정됐다. 1조, 2조, 4조에 보면 공원 외 용도변경이나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정신을 우선 살려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원 녹지를 함부로 줄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은 “기존 물량 착공과 민간 규제 합리화가 우선”이라며 “(용산공원 부

지는) 오염 정화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부터 거쳐야 한다. 이곳에 언제 착공할지 장관님도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공원은 대도시의 대규모 마지막 녹지 공간”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구청, 서울의 많은 국민들이 도심 녹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매칠 전에 (김 장관이) 용산 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서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재고를 할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기자들이 한 질문의 핵심이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 여부였기 때문에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녹지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원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용산 공원 내)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구방사청 부지도 있고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강행 우려”

(서울시장)

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
“여가·생태 공간으로 보존해야
시와 충분한 협의 하지 않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19일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공식 검토한 데 대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 시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용산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 권 의원은 녹지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이번 부동산 정책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1인당 5.7㎡에 불과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칙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 국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이미 확실하고 검증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주택) 공급 대안이 있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의 일부, 특히 ‘어린이정원’ 부분을 택지로 쓰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정부 안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법령상으로도 (서울시는) 협의권자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고 전했다.

나아가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6000가구를 넣는다고 처음에 정부, 국토부와 합의가 됐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1만 호를 넣겠다고 해서 저희가 8000가구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끝내 1만 호를 잡아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용산 공원에 또 1만 가구,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 보안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고 부연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김민석, 부산서 첫 최고위... 영남 공략 시동

(더불어민주당 대표)

봉하·평산 찾아 ‘통합 행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선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의 장소를 부산로 정하고 해양수도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청에서 전재수 부산광역시청장과 회동한 후 부산광역시청으로 이동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

했다. 전재수 시장은 김 대표를 만나 오는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국제연합) 해사총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김 대표는 이에 화답해 최고위에서 2028 유엔(국제연합) 해양총회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손발을 맞출 시장을 뽑아주셨지만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지방의회는 소수”라며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없이는 부산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19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과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테니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박태홍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지원 감사”
내대표가 19일 지난 6·3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정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성호 사의에 개각설... 5~6곳 교체 거론

李, 인적 쇄신 통해 국정 동력 확보
중기부·법무부·국토부 등 검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 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5~6개 부처에 대해 장관을 새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권 2년차인 데다 여당의 새 대표가 들어선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19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8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정성호 장관의 후속 인사를 고심 중이다.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로 등으로 여러 차례 사의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해온 데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도 통과된 상황이라 이번에는 반려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성호 장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면서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많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고, 후임을 찾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이다. 또 한 성숙 국무총리의 취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현재 공석이라, 이 대통령으로 서도 개각 수요가 생겼다.

당초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개각을 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증시 하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개각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과 개각이 맞물리면 인적 쇄신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LOTTERIATM basil mozzarella tomato pineapple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나폴리 맛피아 VS 삐딱한 천재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직 인사담당이 모의면접, 피드백 해줘… IT 채용문 활짝”

Q 르포 | 2026 금융권 채용박람회 가보니

#.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강석민(가명·25) 씨는 강의가 없는 날 금융권 채용박람회를 찾았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졌고, 청년 세대의 구직 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금융권의 일자리 정보도 얻고 싶어 서다. 그는 “개최 사실을 늦게 알아 모의 면접은 신청하지 못했지만,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기업들의 인제상도 알게됐다”라며 “내년부터는 금융권 채용박람회가 연 2회 개최되는 만큼, 내년에는 모의 면접에도 참여해보고 싶다”고 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9일 열린 ‘2026년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몰려 들었다. 올해 금융권 채용박람회에는 은행·증권사·카드사 등 국내외 8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작년보다 2곳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10화제를 맞은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금융권에서도 정답을 찾는 사람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모의 면접’ 성황

구직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쪽은 ‘모의 면접’이었다. 신청자를 사전에 접수한 모의 면접은 현직 인사담당자들이 실제 채용 과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해준다. 고득점을 받은 구직자에게는 기업 지원 시 서류전형 등을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는 모의면접이 외국계은행과 증권사까지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모의면접에 참여했다.

시중은행 모의 면접을 대기하던 한 참가객은 “취업문이 좁은 상황에서 서류전형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건 큰 혜택이다”라며 “작년에도 모의면접에 참여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지 못해 아쉬웠는데, 지난 1년 동안 더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고 했다.

박람회장 한 칸에는 채용박람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청년들을 위한 화상 모의면접장도 마련됐다. 화상면접에는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금융공공기관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 금융권 ‘인제상’ 변화

이날 박람회에서 금융권의 인제상 변화가 눈에 띄었다. 기존의 인제상이 단정하고 외모와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인 소통능력과 디지털·인공지능(AI) 활용능력까지 영역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 증권·카드사 등 82곳 참여 모의면접 고득점자에 서류 면제 ‘소통·디지털·AI 능력’ 인제상 확대 “IT관련 기업들 경력직 위주 채용 금융권, 고용안정·처우도 좋아”

확대됐다. 디지털금융의 보급으로 대면 영업 비중이 줄고 기술적 영역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인제상만으로는 최적의 인재를 탐색하기 어려워져서다.

금융권의 인제상 변화 속에 IT 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구직자들도 박람회장을 찾았다. 최근 AI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IT 업계의 취업문은 좁아진 반면, 금융권에서는 고용 안정성과 좋은 처우를 앞세워



참관객들이 한 시중은행이 진행하는 모의면접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IT 인재 영입에 힘쓰고 있어서다.

박람회장을 찾은 한 구직자는 “IT 관련 기업들은 최근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신규 채용 규모는 줄이고 있는데,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IT 관련 채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면서 “금융권은 높은 고용 안정성과 좋은 처우로도 알려진 만큼, 금융권의 IT 인재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서 박람회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 금융채용박람회, 내년부터 연 2회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가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취업 정보를 획득하고 기회를 얻는 주요한 창구로 자리잡는 가운데, 박람회 개최를 후원하는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채용박람회를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도입

으로 직무 요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경력직 선호도 심화하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금융권 취업 문턱은 높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AI의 도입은 보안, 심층고객상담 등 영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내년부터 채용박람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최하고 두 번 중 한 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하겠다”면서 “금융권에서도 AI 시대에 걸맞는 청년 인재 채용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지역 인재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asj123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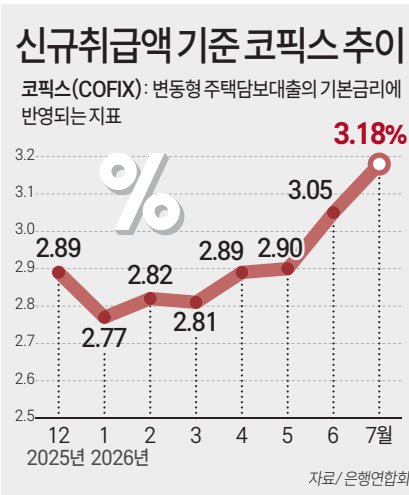
metro

이번주 대출총량 30조 더 푼다… 수요자 체감은 ‘글썄’

코픽스·은행채 등 가파르게 상승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4.45% 달해 접수 조기 마감에 은행 ‘오픈런’도 고신용자 중심 대출 등 체감 어려워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발품을 파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잔금·이주비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총량 목표치를 2배로 늘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 문턱을 넘더라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에 따르면 6월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 금리는 평균 4.45%로 집계된다. 지난해 평균 4.02%와 비교하면 0.



43%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본금리에 반영되는 지표인 코픽스(COFIX) 역시 6달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18%로 일년 전(2.51%)과 비교해 0.67%p 올랐다. 올해 4월부터 매달 올라 2024년 12월

(3.22%)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연 4.430%로, 지난해 같은 날(2.844%)보다 1.586%p 상승했다. 1년 사이 시장금리가 크게 뛰면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대출 여력마저 줄면서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한도를 관리하면서 대출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인

터넷전문은행에서는 하루 대출 한도가 새로 배정되는 새벽 시간대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보다 늘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량 한도가 확대된다고 해서 실수요자들이 곧바로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와 연체 위험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우수한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은 다소 넓어지더라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캐피탈 신용대출 차주 10명 중 4명 ‘고금리’

아이엠·오케이·메리츠 등 주요 13곳 금리 16~20% 신규대출 비중 43%

캐피탈 신용대출 차주 10명 중 4명이 16%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캐피탈에서는 개인신용대출 차주 대부분이 연 16%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사에 이어 캐피탈까지 고금리 풍선 효과가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요 캐피탈사 13곳(아이엠·오케이·한국·한국투자·BNK·KB·롯데·메리츠·우리금융·하나·현대·JB우리·NH농협)에서 16~20%의 신용대출 신규 이용자 비중은 평균 43.42%로 집계됐다. 반면, 연 8~12% 금리 구간 대출 이용자 비중은 29.91%다. 8% 미만은 0.89%에 머물렀다.

캐피탈사 13곳 중 5곳은 고금리 이용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아이엠캐피탈은 신규 차주의 53.64%가, 한국투자캐피탈은 58.52%가 16% 이상 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했다. 메리츠캐피탈과 JB우리캐피탈도 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 비중이 높았다. 두 캐피탈사의 16% 이상 금리 이용 고객 비중은 각각 97.29%, 74.73%다.

신규 고객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고금리 대출 상품을 받은 곳도 있다. 오케이캐피탈 연 16~20% 신용대출 이용 고객 비중은 100%다. 13개 캐피탈사 중 유일하다.

오케이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금융 상품 27가지 모두가 고위험 대상자를 한 상품이라서 금리가 높게 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B국민인증서 이용고객 1800만명 돌파

성인 3명 중 1명 이상 사용하는 셈

KB국민은행은 대표 사설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가 누적 이용 고객 1800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인증서는 2021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이후 꾸준히 이용 기반을 확대해 왔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 기준 3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다.

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

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에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제공하며 금융거래를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주택청약, 연금조회 등 주요 공공서비스와 소액·엔터테인먼트·의료 등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카카오뱅크-코인원, 실명계정 계약 연장

카카오뱅크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코인원에서 원화를 입출금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양사는 계약연장을 위한 내부 절차와 계약서 날인을 완료했으며, 코인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전 신고 절차도 마쳤다.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AML) 체계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계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왔다. 업계 최초로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고,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정 협의체와 FIU 주관 협의체에도 참여하며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코인원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삼성, 광주에 HVAC 생산라인 세운다… 2400억 대규모 투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협약
2028년 초부터 핵심장비 생산
“차별화된 HVAC 경쟁력 확보”

삼성전자가 광주에 2400억원을 들어 냉난방공조(HVAC) 생산라인을 짓는다. 지난해 인수한 플렉트그룹의 기술을 국내에 접목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19일 플렉트그룹코리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청사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부사장, 임성택 플렉트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규 라인에는 광주사업장 제3캠퍼스에 들어선다. 연면적 2만1800㎡로 축구장 3개 크기다. 1989년 사업장 설립 이후 37년 만의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다.

◆ 액체냉각 핵심 장비 국내 생산

생산은 2028년 초 시작하며 핵심 품목



(왼쪽부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김철기 부사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플렉트그룹코리아 임성택 대표(삼성전자 DA사업부 HVAC사업팀장). /삼성전자

은 냉각수 분배장치(CDU)다. CDU는 냉방 설비인 칠러와 서버를 직접 식히는 쿨드 플레이트를 잇는 장비로, 냉각수의 압력과 온도를 정밀 제어해 서버에 공급한다. 열을 흡수한 냉각수는 CDU에서 열교환을 거쳐 다시 칠러로 돌아간다.

액체냉각이 부상한 배경에는 발열 문제가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

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얹은 AI 서버는 랙 단위 전력밀도가 높아 공기 냉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스틱스MRC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최적화 시장이 2026년 213억달러에서 연평균 25.8% 성장해 2034년 1335억달러(약 18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에서는 공기 냉각용 팬 윌 유닛(WU)과 컴퓨터용 공기 처리 장치(CRAH), 대형 건축물용 공기조화기(AHU)도 함께 생산한다. 액체냉각과 공기냉각을 한 곳에서 대응하는 구조다.

◆ 플렉트 인수 효과 본격

플렉트그룹은 100여년 역사의 공조 전문기업이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14개 생산라인과 8개 연구소를 운영하며 데이터센터와 산업용 제조시설, 호텔·공항 등에 중앙공조 장비를 공급한다. 광주 라인은 15번째 생산거점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5억유로에 플렉트그룹을 인수했다. 이달 12일에는 인도 푸네에 생산라인을 준공했고, 이번에 국내 투자까지 확정하며 생산 기반을 넓히고 있다.

플렉트그룹의 중앙공조 기술에 기업간 거래(B2B) 제어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와 빌딩 통합 솔루션을 결합하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글로벌 HVAC 시장 선도 기업으

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 적자 DX의 활로

이번 투자는 DX부문의 실적 부진과도 맞물린다. DX부문은 2분기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공조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냉각 수요가 늘어나는 성장 사업이다. 삼성전자가 광주 생산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나선 배경이다.

광주사업장의 역할도 확대된다. 냉방고와 세탁건조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을 생산해온 광주사업장은 앞으로 데이터센터용 공조 장비까지 맡게 된다.

김철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동력인 HVAC 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번 광주 생산라인 구축은 차별화된 HVAC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전자, 유럽 완성차 ‘텔레매틱스 솔루션’ 적용

5G 표준 R16 기반 속도·안정성 높여
SDV·AIDV 시대 전장부품 주도권 강화

LG전자가 차세대 5G 통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텔레매틱스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 전장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최신 5G 표준인 R16을 기반으로 통신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과 인공지능 중심 차량(AIDV)에 필요한 고도화된 연결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최근 5G 최신 통신표준인 R16 기반 스마트 텔레매틱스 솔루션을 유럽 완성차 양산 모델에 처음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R16 기반 차량용 텔레매틱스 솔루션이 유럽 양산 차량에 적용된 것은 업계 최초다.

R16은 5G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R15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인 두 번째 표준이다. 데이터 전송 신뢰성을 높이고 지연시간을 줄이는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한다. 데이터 오류율은 0.001%, 텔레매틱스 모듈과 기지국 사이의 데이터 전

송 지연시간은 0.001초(1ms)로 각각 4G 대비 100배, 5배 개선했다.

R16 기반 스마트 텔레매틱스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OTA(Over-the-Air), 차량과 사물·인프라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V2X(Vehicle-to-Everything),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을 지원한다. 빠른 응답과 안정적인 통신이 필요한 자율주행에도 적합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은 LG전자의 SDV·AIDV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LG 알파웨어’를 고도화하는 기반으로도 활용된다. LG 알파웨어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플레이웨어’, AR/MR·AI 기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웨어’, AI 알고리즘과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ADA S 솔루션 ‘비전웨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드웨어 구조도 개선했다. LG전자는 통신 모듈과 최대 12개의 안테나를 하나의 하드웨어로 결합해 부품 간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 손실을 최소화했다.

배선 구조와 공간 배치를 단순화해 차량 내 설치 공간과 원가 부담을 줄이고, 외부로 돌출되는 샤크핀 안테나를 없애 외관 디자인의 자유도도 높였다.

LG전자는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 추정치 기준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로, SDV·AIDV 시대 전장 부품사업 주도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차세대 차량용 통신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3월 퀄컴 주도로 출범한 ‘6G 연합’에 커넥티드 모빌리티 분야 핵심 파트너로 합류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AI 기반 인포테인먼트, 차량·모바일·홈·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기술, SDV 환경에서의 고성능 컴퓨팅 및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공동 연구 중이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사장은 “모빌리티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차량용 통신 분야에서 혁신 솔루션을 지속 선보여 SDV를 넘어 AIDV 시대에도 텔레매틱스 시장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건설불황에 철근 수요 급감… 철강업계, 감산기조 강화

비수기 진입 후 가격하락·재고증가 겹쳐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현대제철이 생산 조절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상반기 감산과 수출 확대 등으로 철근 가격이 반등했지만 수익성이 여전히 손익분기점(BEP)을 밑도는 상황에서, 비수기 진입 이후 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까지 겹치고 있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달 인천공장을 매주 4일간 휴동하며 철근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포항공장도 이달 말 5일간 추가 비가동에 들어가는 등 감산 기조를 강화한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부터 설비 감축과 생산체제 재편을 병행해왔다. 지난 1월 인천

공장 90t 전기로와 소형압연 설비 폐쇄를 결정하면서 연간 철근 압연능력을 335만t에서 260만t으로 75만t(22.4%) 줄였다.

포항1공장도 연산 80만t 규모의 철근·특수강 봉강 혼합 라인을 철근 전용으로 전환하고 특수강 봉강 생산은 당진제철소로 이전했다. 생산 품목을 분리해 시장 상황에 따라 가동률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한 것이다.

상반기 철근 가격은 반등했지만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현대제철은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철근 수출 지속과 제강사 공급 조절, 주요 원료가격 상승으로 봉형강 제품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료인 철스크랩 가격 상승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철근 수익성은 여전

히 BEP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철근 가격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철근 유통가격은 지난 6월 톤당 89만5000원에서 7월 88만5000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달 87만원까지 낮아졌다.

상반기 국내 철근 수요는 329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올해 연간 수요도 659만t으로 추산돼 3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도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재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수요가 추가로 악화할 만한 요인이 크지 않아 최소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며 “개선된다면 소폭이나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LG엔솔, 美 랜싱공장 가동… ESS 수요 대응

5대 생산거점 완성… 북미사업 박차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 가동을 시작하며 북미 생산체계를 확대했다. 연간 35GWh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랜싱 공장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전기차용 삼원계(NCM) 배터리를 함께 생산하며 북미 ESS 수요에 대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미시간 랜싱 공장’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랜싱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지역 7번째 생산공장이다. ESS용 LFP 배터리와 전기차용 NCM 배터리를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 제조 거점으로 운영되며 연간 35GWh 이상의 배터리 셀 생산능력을 갖춘 예정이다.

랜싱 공장 가동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ESS 시장을 겨냥한 5대 생산거점 구축도 마무리했다. 5대 거점은 단독 생산 시설인 미시간 랜싱·홀랜드 공장과 캐나다 넥스트스타에너지 온타리오 공장, 합작 생산시설인 혼다와의 L-H배터리컴퍼니 오하이오 공장과 GM과의 얼티엄셀즈 테네시 공장으로 구성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년 반 동안 전략적 리밸런싱을 추진하며 북미 생산시설을 재편해 왔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변화에 맞춰 기존 생산시설을 ESS용으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에서 열린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전환하고 투자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단독 공장과 합작공장을 연계한 생산망을 구축했다. 북미에 이처럼 다각화된 ESS 생산체계를 갖춘 글로벌 배터리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5대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올해 말까지 북미에서 50GWh 이상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랜싱 공장 가동은 LG에너지솔루션 북미 사업의 성장을 가속할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국 모빌리티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의 미래를 뒷받침할 첨단 배터리 제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배터리 생태계와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그룹, 中 롱바이그룹 리튬 공급

이차전지소재 사업 협력 업무협약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양극재 선도기업인 중국 롱바이그룹에 배터리급 리튬 공급을 추진한다. 광석·염수·폐배터리에서 생산한 리튬을 공급하고 자원 재활용과 이차전지소재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롱바이그룹과 이차전지소재 사업 협

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포스코그룹이 생산하는 광석·염수·리사이클링 리튬의 배터리급 제품 공급을 추진한다.

포스코필리바리튬솔루션의 광석리튬과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염수리튬, 포스코HY클린메탈이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등이 대상이다.

/유혜온 기자

AI·반도체에 자금 몰려… 상반기 벤처투자 8.9조 역대 최대

중기부, 상반기 시장 동향 발표

전년보다 54.3% 늘며 기록 경신
ICT서비스 1.86조로 업종 1위
답테크 대형 자금유치 증가세 전인
초기기업 유입액도 56.4% 늘어
비수도권 규모 2배 넘게 증가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자가 8조8676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전년 동기 5조7476억원보다 54.3%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7조6442억원도 훌쩍 뛰어넘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8조4366억원으로 상반기 중 역대 두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19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기 벤처투자 상위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1조8600억원(21%) ▲전기·기계·장비 1조5359억원(17.3%) ▲바이

오·의료 1조5041억원(17.0%) 순이었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기존에는 플랫폼 기반 창업과 벤처투자 실적이 컸는데 작년부터 AI가 테마로 부상하면서 AI솔루션 개발 같은 인공지능 활용 분야로 투자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벤처투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미국의 경우 AI 분야에 70~80%까지 집중됐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ICT제조(143.3%), 전기·기계·장비(90.4%), ICT서비스(62.2%)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AI 반도체, 메모리칩, 휴머노이드 등 반도체·로봇틱스 분야에 대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 등이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벤처투자 흐름도 맥을 같이 한다. 글로벌 자산운용 정보기관 프레이(P

reqi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벤처투자는 5150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191% ↑)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70%가 AI·반도체 등 정보통신(IT) 업종에 투자됐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는 업력 7년 이하, 7년 초과 기업에서 투자금액·피투자 기업 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 투자도 1조828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4% 증가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AI·반도체·로봇틱스 등 답테크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성과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게 요인"이라며 "코코넛열매를 획득하기 위해 씨앗부터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정 신생 기업들이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게 통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상반기 벤처투자(벤처투자회

사·조합 기준)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등에 투자가 집중되며 수도권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49.9% 늘어난 3조97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비수도권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4.7%나 늘어난 1조64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벤처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러한 벤처투자의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모태펀드의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D·LGD, 차세대 OLED 기술 격돌

삼성D, 7.6형 와이드뷰 첫선
20형 스트레처블 크기 2배 확대
LGD, FMM 없는 'FLiPP' 공개
개구율 55% 높여 휘도 1.6배

양대 디스플레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국내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 학술대회에서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경쟁력을 뽐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부산 벡스코에서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26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IMID 2026)'에 참가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행사에서 최신 광시야각 기술을 적용한 7.6형 '와이드뷰 디스플레이'를 처음 공개했다. 기존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접히는 중앙부 양측 곡면의 밝기가 정면 대비 약 40% 수준으로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신규 유기발광층의 소재와 구조를 재설계해 화면이 휘어진 부분에서도 휘도 저하 없이 균일한 밝기를 구현했다. 폴더블뿐 아니라 슬라이더블, 롤러블 등 차세대 폼팩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 크기인 20형 '와이드 스트레



삼성디스플레이가 'IMID 2026'에서 공개한 '와이드뷰 디스플레이'와 '와이드 스트레처블' /삼성디스플레이

처블'도 처음 선보였다. 기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2개를 하나의 화면처럼 연결하는 타일링 기술을 적용해 화면 크기를 기존 제품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차량용 디지털 콕핏과 휴머노이드, 디지털 사인지 등 곡면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자체 개발한 차세대 OLED 패터닝 기술 'FLiPP(플립·FMM-Less innovative Pixel Patterning)'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FLiPP은 OLED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FMM 없이 작·녹·청(RGB) 픽셀을 형성하는 기술로,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터닝 기술과 하이트 OLED(WOLED) 기술 노하우를 결합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MID 2026 LG디스플레이 전시 부스 전경. /LG디스플레이

해 개발했다.

기존 FMM 방식은 미세한 구멍이 뚫린 금속 마스크를 이용해 RGB 유기물을 증착하는 방식이다. 크기나 해상도를 변경할 때마다 고가의 FMM을 제작해야 하고, 대형화할수록 금속 마스크 중앙부가 처지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FLiPP은 기판 전체에 RGB 화소를 순서대로 도포·고정한 뒤 자외선(UV)을 이용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했다.

FLiPP은 전체 디스플레이에서 픽셀이 차지하는 면적인 개구율을 기존 FMM 방식보다 약 55% 높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진공, 10년 만에 4억달러 외화채 발행

3.5년 만기 소셜본드로 자금 조달
미국채 대비 40bp 가산금리 확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년 만에 외화채를 발행했다.

중진공은 미국 장기금리 상승,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 속에서 시장 변동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3.5년 만기로 4억 달러 규모의 소셜본드(Social Bond)를 미국국채 금리 대비 40bp(1bp=0.01%) 가산해 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지원, 신산업 분야 육성, 혁신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중진공이 발행에 성공한 이번 외화채는 국내 공사·공단이 발행한 3년 고정금리 외화채권 기준 역대 최저 스프레드 수준이다. 이번 조달은 국내 발행 대비 낮은 금리로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중진

공의 설명이다.

이번 발행의 배경에는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계별 글로벌 IR 전략이 있었다. 중진공은 채권 발행에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금융 중심지에서 논딜로드쇼(Non-Deal Roadshow)를 개최하고 다수의 주요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직접 만났다.

이어 발행 직전인 이달 12·13일 양일간 최종 딜로드쇼(Deal Roadshow)를 개최하며 투자자들의 의향을 집중 타진했다. 이러한 2차례에 걸친 IR 활동을 통해 아시아 및 유럽, 중동 등 소재 기관의 투자 자로부터 폭넓은 투자 수요를 끌어냈다.

발행 과정에서 중진공의 ESG 공신력도 국제적으로 입증됐다. 중진공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ESG 평가에서 소셜 파이낸싱 부문 최고 등급인 'SQS1(Excellent-탁월)'을 획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무디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가한 한국 소셜 파이낸싱 중 최고 수준 평가이며 국내 기관 최초의 성과다.

/김승호 기자

HD현대중공업, 페루서 공동건조 첫 합정 진수

2024년 수주한 상륙지원함 1번함 설계·기술지원 말고 현지서 생산
완제품 인도 넘어 공동생산 본격화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현지 조선소와 공동 건조한 첫 합정을 진수했다. 국내에서 건조해 완제품을 인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결합한 합정 수출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18일(현지시간) 페루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의 신형 상륙지원함 1번함인 '침보테함'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침보테함은 HD현대중공업과 시마조선소가 공동 건조하는 신형 상륙지원함 2척 중 1번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4년 4월 페루 해군으로부터 호위함과 원해경비함, 상륙지원함 등 총 4척을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상륙지원함 2척을 동시에 건조해왔다. 2번함 '탈라라함'도 이달 초 육상 건조 공정을 마쳤다.

침보테함과 탈라라함은 다목적 상륙지원함으로 인력·물자 수송과 군수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함명은 각각 페루의 항구도시에서 따왔다.

이번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설계와 기술지원을 맡고 시마조선소가 현지 생산시설에서 블록 생산·조립과 외장, 시험·시운전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HD현대중공업은 합정 도입 과정에서 자국 건조와 기술협력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만큼 이 같은 현지 공동생산 방식을 향

후 해외 사업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유관기관도 사업을 지원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페루 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했고 주페루 한국대사관과 코트라는 현지 정부와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히 합정 한 척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및 조선산업 관련 공급망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K-합정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중기부, '모두의 창업' 2차 모집

선발 규모 두배 늘려 총 1만명 발굴
예비창업자 전체의 80% 이상 선발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7일까지 모집하는 2차 모두의 창업은 선발 규모를 1차 대비 두배로 늘렸다. 총 1만명(일반·기술 트랙 8000명, 로컬 트랙 2000명)의 혁신 창업자를 발굴한다. 더 많은 국민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중창업을 희망하는 기창업자의 참여 자격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창업의 첫걸음을 돕는다'는 프로젝트의 취지를 고려해 전체 선발 규모의 80% 이상을 예비창업자로 선발하고,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참여자를 70% 이상(일반·기술 트랙 70% 내외, 로컬

트랙 90% 내외) 선발할 계획이다.

일반·기술트랙은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을 활용한 새 가치를 중점 평가하며, 로컬트랙은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을 결합한 가치 창출을 중시에 둔다.

보육 인프라도 확충해 하나은행, 신한 스퀘어브릿지 등대·중견기업과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로 참여하며 보육기관을 170여개로 늘렸다.

도전자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도전신청서'도 개편했다. 기존 항목에 도전자의 역량과 창업 준비 과정을 기술하는 문항을 추가했고, 제도전자를 대상으로 1차 도전 때 제출했던 아이디어 대비 개선·보완된 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해당 내용과 재도전 멘토링 참여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해 선발 시 우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햐터그룹
Haetter Group

K-게임, 해외 이용자 공략 박차 ‘PC·콘솔’ 신작으로 플랫폼 확장

게임스컴 2026

오는 26~30일 독일 쾰른서 진행 크래프톤, 배그 잇는 신작 5종 선봬
엔씨, ‘아이온2’ 등 신작 3종 공개
펄어비스, 삼성전자와 ‘붉은사막’
‘P의 거짓’ 이후 수상작 배출 못해
게임스컴 어워드 수상 여부 ‘주목’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이 열리는 독일 쾰른으로 집결한다. 모바일과 내수 시장을 넘어 PC·콘솔과 글로벌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K게임이 신작을 앞세워 해외 이용자 공략에 나선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스컴 2026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다. 올해는 행사 역사상 처음으로 이용 가능한 전시 공간이 모두 매진됐으며, 전시 규모는 약 23만㎡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크래프톤과 엔씨(NC),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가 출격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PC·콘솔 타이틀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플랫폼 다변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게임스컴

◆ 크래프톤·엔씨 신작 전면에…PC·콘솔 승부

크래프톤은 게임스컴에서 신작 5종을 선보이며 신규 지식재산권(IP) 발굴에 힘을 쏟는다. ‘배틀그라운드’를 잇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글로벌 이용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엔씨는 개막 전날 열리는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ONL)’를 통해 ‘아이온2’ 등 신작 3종을 공개한다. 특히 아이온2는 국내에서 흥행한 대표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는 핵심 타이틀이다. 엔씨 역시 기존 MMORPG와 모바일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장르와 플랫폼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펄어비스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붉은사막’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게임스컴 부스에 마련된 시연 공간을 통해 글로벌 이용자와 만난다. 카카오게임즈도 게임스컴에 참가해 해외 시장에서 이용자 접점을 확대한다.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스컴에 공을 들

이는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사업 전략 변화가 있다. 국내 모바일 MMO RPG 중심에서 벗어나 PC·콘솔로 플랫폼을 확대하고 북미·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규 IP 확보에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 ‘P의 거짓’ 이후 3년째 빈손…올해는 다를까

한국 게임의 ‘게임스컴 어워드’ 수상 여부도 관심사다. 국내 게임은 2022년 네오위즈 ‘P의 거짓’이 3관왕을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수상작을 배출하지 못했다.

당시 P의 거짓은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최고의 롤플레이 게임’ 등 3개 부문을 휩쓸었다.

올해는 주요 게임사들이 PC·콘솔 중심의 글로벌 타이틀을 대거 앞세운 만큼 수상작이 다시 나올지 주목된다. 게임스컴 어워드는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부문별 후보와 수상작을 선정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이 PC와 콘솔까지 플랫폼을 넓히면서 글로벌 게임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올해 게임스컴은 국내 게임사 신작의 해외 경쟁력과 이용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생활·금융·의료·교육 ‘모두의 AI’로 결집

‘모두의 AI’ 사업 컨소시엄 구성 카카오·KT·SKT 등 6곳 제안서 계열사도 포함… 국산 AI 연합 구축

전 국민이 이용할 보편적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축하는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이 컨소시엄 구성을 갖추며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1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모 접수 결과 카카오·KT·SK텔레콤·이스트소프트·엔케이이다·제논 등 6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다. 당초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네이버는 검토 끝에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각 컨소시엄은 생활 서비스와 금융, 의료, 교육 분야 AI 기업들을 폭넓게 묶었다. 특히 카카오·KT·SK텔레콤은 그룹 내 계열사와 국내 생활 서비스 기업에 국산 AI 모델을 적용할 서비스 접점을 확보했다.

실제로 공모 요건상 참여 사업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충족한 국산 모델을 50% 이상 활용하고, 다른 국내 기업의 AI 모델도 30% 이상 결합해야 한다. 소버린 AI 생태계에서 일상 서비스 활용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각 컨소시엄의 공통점은 주관사인 카카오·KT·SK텔레콤과 함께 자회사 및 계열사가 나란히 참여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기업간거래(B2B) IT 전문 자회사 카카오토크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기업용 AI 솔루션과 연결할 접점을 마련했다. KT는 그룹 내 금융 플랫폼인 BC카드로 결제 서비스 영역까지 AI 적용 가능성을 넓혔



생활 서비스와 금융, 의료, 교육 분야 등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따눔AI

다. SK텔레콤은 IPTV와 내비게이션 등 생활 서비스와 연계를 고려해 SK브로드밴드, 티맵모빌리티를 컨소시엄에 포함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특히 LG그룹의 기술 인프라를 결합한 구성을 갖췄다. 독과 모2차 평가를 통과한 LG AI연구원을 비롯해 LG전자, LG유플러스, LG CNS 등이 참여했다. AI 연구·개발부터 IT 시스템, 디바이스, 통신 서비스, IT 시스템 구축까지 전 영역을 연결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KT 컨소시엄은 교육·콘텐츠·커머스 등 생활 서비스 기업을 고르게 포진시켰다. EBS와 AI 학습 플랫폼 운영사 매스프레소를 통해 공교육 분야에서 개인화 학습 서비스를 확장하는 구상이다. 이밖에 게임 AI 역량을 보유한 NC AI, 패션 플랫폼 무신사, 부동산 플랫폼 직방, 가격비교 기업 커넥트웨이브 등 콘텐츠와 생활 서비스에 방점을 찍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건강관리와 고

령층 돌봄 서비스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 음성 기반 건강 분석 기업 사운더블헬스코리아,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대화형 AI 기업 페르소나 에이아이 등의 시너지가 예상된다. 병원·약국 정보와 건강 상태 확인, 정서 지원, 안부 확인 등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조합이다.

한편 엔케이이다와 제논은 주관기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스트소프트 컨소시엄은 메가존클라우드·플라리스 오피스 등이 참여해 업무 중심의 AI 에이전트 구현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버는 공모 마감 직전까지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했지만 최종 불참을 선택했다. 네이버 측은 “현재 추진 중인 기존 AI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미 검색과 광고, 쇼핑 등 핵심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색에서는 생성형 AI를 결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커머스·광고에서도 AI를 활용해 이용자와 판매자·광고주를 연결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모두의 AI’는 국민 누구나 비용과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국산 AI 모델을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하고 정부·공공 서비스와 연계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 최대 3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 말 베타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KT, 기업용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지원

국산 AI 반도체·LLM 통합한 ‘KT NPU LLM 스테이션’ 선택

KT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한 인공지능 전환(AI) 지원에 나선다. KT는 기업용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KT NPU LLM 스테이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어플라이언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완제품형을 의미한다. 국산 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을 하나의 서버에 통합했다. AI 반도체부터 모델, 운영 플랫폼에 이르는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구성해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정책 방향을 기업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다.

KT가 독자 개발한 LLM ‘믿음 K 2.5 프로’와 리벨리온 NPU ‘ATOM-MAX’가 탑재됐다. 여기에 운영 API 플랫폼까지 더해 일체형으로 구성했다.

믿음 K 2.5 프로는 고난도 추론과 에이전트 활용이 강점이다. 추론 특화 NPU ‘ATOM-MAX’는 공인 시험을 통해 동급 GPU 대비 높은 처리 성능과 전력 효율을 검증받았다.

특히 강력한 보안이 특징이다. 제품은 고객사 내부에 설치되며 모든 데이터와 AI 연산이 사내에서만 처리된다. 망분리 등 관련 규제와 강력한 보안 필요성으로 해외 생성형 AI를 도입하지 못했던 공공, 국방, 제약, 제조, 금융 등 규제 산업의 AI 전환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부담도 낮췄다. 서버, AI 모델, 플랫폼이 통합된 완제품형 장치를 별도 구축 과정 없이 설치 당일부터 사내 문서 기반 질의응답(RAG) 등 AI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추론 특화 NPU를 채택해 동급 GPU 서버 대비 전력 효율이 높고, 업계 표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해 기업이 기존에 쓰던 AI 서비스의 접속 정보만 바꾸면 코드 수정 없이 호환해 사용할 수 있다.

KT는 향후 회의록 작성과 코딩 지원,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등을 순차적으로 탑재하고 에이전트 전문 개발사와 협력해 고객 맞춤형 구축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품의 활용 영역을 퍼지컬 AI를 위한 엣지 데이터센터로 확대해 저전력·저지연 AI 인프라 구현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LG U+·연세대, AI-RAN 시험망 기술검증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

5G망 전환 때 안정적 연결 확인

LG유플러스는 연세대학교와 인공지능 기반의 무선접속망(AI-RAN) 시험망에서 네트워크 전환 기술 검증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6G 전환을 앞두고 AI-RAN은 핵심 네트워크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AI-RAN은 인공지능(AI)이 통신망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차세대 무선망 기술로, 통신 품질 저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네트워크 자원을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검증은 LG유플러스의 5G망과 연세대학교가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자

체 개발한 AI-RAN 시험망을 연동해 진행했다. 양측은 로봇·드론 등 퍼지컬 AI 장비가 AI-RAN 시험망을 벗어나 5G망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5G망에서 AI-RAN 시험망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단말이 무선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의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확인했다. 검증에는 산업용 모바일 기기 전문기업 포인트모바일이 제작한 ‘PM 95’ 단말이 사용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국내 AI-RAN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왼쪽 두 번째)와 ‘네이버 프라이버시 챌린지’ 본선 진출 10개 팀이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에 대학생 10개팀 진출

네이버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네이버 프라이버시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전은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밤아저씨’팀이 차지했다. 해당 팀은 여러 온라인 게시물에 흩어진 정보를 종합할 경우 특정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위

험을 AI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PER(프라이버시 강화 보상)’ 제도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안이 실제 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우수 제안에는 보상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30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총 353만원을 지급했다. 제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누적 접수 건수는 1659건으로, 이 가운데 648건에 약 7120만원의 보상이 지급됐다. /최빛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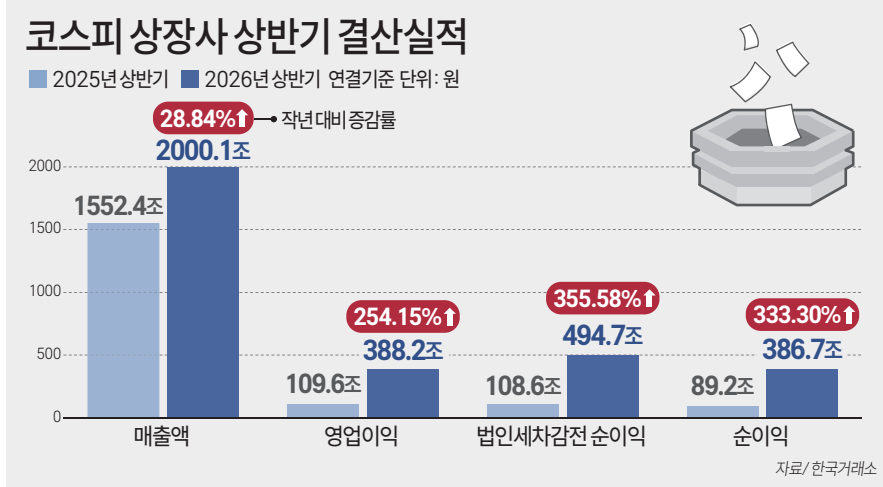
코스피 영업익 3.5배 ‘깡충’… 삼성·닉스가 60% 이상 차지

상장사 상반기 결산

매출액 2000조… 전년비 28.84% ↑
순이익 386조6740억… 333% 증가
반도체 제외 실적 개선 폭은 낮아져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크게 개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배, 순이익은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1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6년 상반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법인 634개사(금융업, 분할·합병,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 등 65곳 제외)의 연결 기준 상반기 매출액은 2000조1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88조1532억원으로 254.15% 급증했고, 순이익은 386조6740억원으로 333.30% 늘



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41%로 전년 동기 7.06%에서 12.35%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46조72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1.44% 급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상반기 영업이익이 98조1529억원으로 489.39% 급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영업이익

익을 합치면 244조8800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연결 영업이익의 60%를 훌쩍 넘어선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국내 증시 상장사 전체의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반도체의 영향력을 견어내면 실적 개선 폭은 크게 낮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상장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75.61%로 전체 증가율인 254.15%와 차이가 벌어진다. 순이익 역시

119.68% 증가에 그쳤다.

업종별 실적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기·전자 업종 64개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582조74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4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53조5026억원으로 674.92% 급증했고 순이익은 255조7436억원으로 697.01%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의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IT서비스(57.40%), 화학(22.02%) 등 16개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건설(-9.72%), 부동산(-17.07%), 통신(-3.05%) 등 4개 업종은 감소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에서는 전기·전자(674.92%), 일반서비스(237.04%), 화학(203.76%) 등 14개 업종이 증가했으나, 오락·문화(-33.55%), 운송·창고(-17.71%), 운송장비·부품(-6.17%) 등 6개 업종은 감소했다. 순이익의 경우에도 전기·전자(697.01%), 일반서비스(361.07%), 화학(432.14%) 등 13개 업종이 증가한 반면, 운송·창고(-62.53%), 의료·정밀기기(-

29.08%), 오락·문화(-22.30%) 등 7개 업종은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업종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모두 적자전환했다.

흑자기업 수는 증가했다. 연결 기준 분석 대상 634개사 가운데 상반기 흑자기업은 519개사로 전체의 81.86%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기 485개사(76.50%)보다 34개사 늘어난 규모다. 반면 적자기업은 149개사에서 115개사로 감소했다.

재무건전성도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00.81%로 지난해 말 110.52%보다 9.71%포인트 낮아졌다. 자산총계는 5844조9014억원, 부채총계는 2934조2939억원, 자본총계는 2910조607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업 42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41조19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07% 증가했고 순이익은 31조9488억원으로 32.82% 늘었다. 특히 증권업 영업이익은 163.37%, 순이익은 161.00%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韓 증시 더블카운팅 15.5%… 美의 14배

올해 89조 중복… 평가가치 왜곡
모회사 할인·일반 주주가치 훼손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에 따른 ‘더블카운팅’ (가치 중복계산) 규모가 미국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더블카운팅 이익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5%로, 미국 1.1%의 14.1배 수준이었다. 일본 11.1%, 영국 5.0%도 크게 웃돌았다.

더블카운팅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에서 동일한 기업가치와 이익이 시장에서 반복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더블카운팅 규모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대형 상장 자회사의 실적 증가로 빠르게 확대됐다.

2022년 14조원이었던 중복이익은 지난해 27조원으로 불었고, 올해는 89조원까

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 속 대형 상장 자회사의 실적 증가가 맞물려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익 중복 규모가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 796조 가운데 89조원이 모회사와 자회사에 중복으로 반영되는 셈이다.

중복이익을 제거하면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은 7.0배에서 7.9배로 상승한다.

표면적인 PER이 실질적인 멀티플(평가배수)보다 낮게 보이며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왜곡됐음을 방증한다. PER이 낮을수록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신한투자증권 이장빈 연구원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에서는 동일한 기업가치와 이익이 시장에서 반복 평가되며, 이는 모회사 할인과 일반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상장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확대될수록 이런 괴리는 더 커질 수 있

어 단순한 PER 비교만으로 시장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는 ‘3%룰’ 방식으로 주주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중복상장 규제안의 핵심이다.

중복상장을 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 평가와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주주총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연구원은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일반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중복상장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데 있다”며 “단순히 모회사 상장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상장 필요성, 일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따는AI로 생성한 ‘공격과 방어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서학개미, 구글·테슬라 담고 美국채로 방어

해외주식 Click

성장주, 방어적 자산에 자금 분산
순매수 1위 ‘알파벳 클래스A’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알파벳(구글)·테슬라 등 대형 성장주에는 거침없이 자금을 쏟으면서도 미국 단기 국채와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로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인공지능(AI) 투자 역시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고 데이터센터·전력 등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다. 성장주 상승에 베팅하면서도 리스크는 분산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17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알파벳 클래스A였다. 매수 결제액은 1억 2714만달러, 매도 결제액은 1983만달러로 순매수 규모가 1억 730만달러에 달했다. 순매수액이 매도액의 6배를 웃돈다.

스페이스X 관련 투자상품(8029만달러)은 2위, 테슬라(7445만달러)는 3위에 올랐다. 상위 3개 종목에만 2억 6204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린 셈이다. 원화로 37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종목 두개가 나란히 상위권에 오르면서 서학개미들의 견고한 선호가 확인됐다.

서학개미들은 다른 한편에선 방어적 성격의 자산도 담았다.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5374만달러)는 4위를 기록했다. 뱅가드 S&P500 ETF(4456만달러)와 인베스코 QQQ(4188만달러)도 각각 5위와 9위에 올랐다. 단기 국채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S&P500과 나스닥100 등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함께 담은 것이다. 특정 종목을 변동성에는 노출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물가 지표 둔화도 이 같은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4.7% 상승해 예상치를 밑돌았고, 근원 생산자물가지수(Core PPI)는 4.2% 상승해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PPI 둔화는 9월 금리 인상 명분을 약화했다”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기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67.1%로 확대됐다”고 짚었다.

개별 종목을 놓고 보면 AI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넘어 인프라 영역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4447만달러)와 알라게니 테크놀로지스(4426만달러)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했다.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4267만달러)와 IRIS 에너지(4113만달러), 코어위브(3086만달러)와 블루 에너지(2804만달러)도 상위 20위권에 포함됐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영웅문S# 간편모드’ 이용자 170만명 돌파

키움증권, 앱 설치 없이 바로 이용

키움증권은 자사 MTS ‘영웅문S#’의 ‘간편모드’ 누적 이용자 수가 170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웅문S# 간편모드는 별도 앱 설치 없이 기존 앱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 앱 투 모드(One App, Two Mode)’를 지원한다.

앱 첫 설치 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일반모드 이용자도 전체 메뉴나 홈 화면 상단의 화면 전환 버튼을 눌러 언제든지 간편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간편모드는 지난해 10월 출시됐다. 쉽고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주식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키움증권이 보유한 방대한 투자 데이터도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공한다. 초보 투자자는 간편한

투자 경험을, 숙련 투자자는 효율적인 매매 환경을 제공하며 편의성을 높였다.

간편모드에선 인공지능(AI)이 핵심 정보만 추려 알기 쉽게 전달한다. 고객이 복잡한 투자 정보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 ▲AI 시황 리포트 ▲AI 종목 리포트 ▲국내·미국 리서치 AI 요약 ▲키움쏫츠 등 특화 콘텐츠를 갖췄다.

AI 시황 리포트는 생성형 AI가 국내외 증시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장 시작 전과 장중, 장 마감 후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지난 13일 기준 151만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키움쏫츠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짧은 영상으로 풀어낸다. 직접 종목을 찾고 분석하지 않아도 하루 증시 흐름과 특장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 개인순매수 ‘1위’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가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5325억원으로 파킹형 ETF 중 개인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순자산은 약 1조 2482억원 증가하며 현재 순자산 7조 9774억원으로 파킹형 ETF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2024년 8월 상장한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는 1조 3128억원에 이른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 등 신용도가 높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 방식 기반으로 설계된 ETF다.

/신하은 기자

김성환 “수입수소·국내석탄 혼소 중단… 그린수소 생산 집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노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혼소 구조, 사업종료 시점 계속 밀려 2040 석탄발전 제로화 정책 이행

공공 온실가스 감축, 민간보다 저조 온실가스감출인지 예산제도 강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로 들여와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제로화)하겠다는 국가 기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해외 수입 예산을 절감해 국내 그린수소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예산을 전액



(왼쪽부터)김영훈 고용노동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불용한 이유를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청정수소 입찰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를 들여와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사업 구조를 구상했으나, 3년의 준비 기간을 거

쳐 15년 동안 운영하면 사업 종료 시점이 2044년, 2045년으로 밀리게 된다”며 “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데 예산

을 쓰기보다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국내 R&D 중심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민간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수습을 약속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목표 관리 대상기관의 목표 달성률은 66.2%로 전년(69.2%) 대비 3.0%포인트 하락했으며, 민간사업장 달성률(84.9%)을 크게 밑돌았다.

김 장관은 “공공이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전체 예산의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다 소 형식적으로 이뤄진 만큼,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보다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출인지 예산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현액 22조 3758억원 중 94.9%인 21조 2418억원을 집행했다. 분야별로는 ‘기후재난 대응 및

안전한 물관리’에 가장 많은 7조 4000억원이 투입됐으며, 기후·대기 분야 4조 9000억원, 에너지 분야 2조 7000억원, 순환경제·녹색산업 1조 2000억원 등 순이다.

전체 불용액(1조 516억원) 중 약 80%(8294억원)가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집중된 점도 논란이 됐다. 특히 국회가 증액한 개인 승용 전기차 보조금 예산 중 1223억원이 불용 처리된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액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나해에는 여러 가지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하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 5% 늘어날 듯”

고용원 ‘하반기 주요업종 일자리 전망’ 조선업 3000명, 2.7% 늘어날 예정 섬유업, 수출 감소 전망… 5000명 ↓

올해 하반기 반도체와 조선 업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1%, 2.7%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반면 섬유 업종 고용은 3%대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반도체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8000명(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AI 서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및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8331억 달러) 대비 94% 급증한 1조6173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첨단 공정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로 인해 17% 늘어난 2375억 달러 투자가 예상된다.

조선업 고용 역시 3000명(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기준 국내 조선소는 3850만CGT의 안정적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치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선박류 수출은 지난해 대비 8.3% 늘어난 339억 1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올해 하반기 섬유업의 고용 규모는 5000명(-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소재 확대, 중동발 공급망 충격과 미국발 통상 규제, 중국의 저가 공세 등 강력한 하방 리스크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생산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

저효과와 첨단소재 신증설 효과로 늘지만, 중동발 공급망 충격과 범용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성장을 제약하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기계, 전자·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금속가공, 석유·화학은 전년동기의 고용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계 + 0.8%, 전자·디스플레이 -0.1%, 철강 -0.3%, 자동차 -0.5%, 금속가공 -0.3%, 석유·화학 -0.6% 등이다.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기계, 조선, 전자·디스플레이,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9개 주력 제조업종이다.

고용정보원은 전년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로 분류한다. -1.5%~1.5%는 ‘유지’, -1.5% 미만은 ‘감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수출기업 채권추심 수수료 50% 감면

중재원, 무보 대행 서비스 추천 ‘맞손’ 무역분쟁 예방·대응 위한 교육 진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함께 해외 채권 미회수와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중재원과 ‘수출기업 채권추심 지원 및 무역분쟁 해결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대금 미회수 위험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 해결과 채권 회수를 연계해 한층 강화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중재원은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 중 해외채권 회수가 필요한 곳에 무보의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추천하게 된다. 무보는 해당 추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신현운 대한상사중재원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기업을 대상으로 추심대행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양기관은 수출기업의 무역분쟁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협력 사업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4조 달러 시장’ 인도와 CEPA 개선협상 속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오는 21일까지 서울서 개선협상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등 협의

정부가 세계 최대 인구나 국내총생산(GDP) 4조 달러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인도 시장과의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한-인도 CEPA 제13차 개선협상이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2차 협상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2016년 개시 이후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잠정 중단됐으나,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텄다. 이번 협상에는 이만영 산업부 통상협정교섭관대리와 인도 상공부 카필 초드리(Kapil Chaudhary)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이만영 산업통상부 통상협정교섭관(대리)은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카필 초드리(Kapil Chaudhary) 인도 상공부 국장을 비롯한 양국 협상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차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참석해 상품·서비스·원산지·무역기술장벽·공급망·산업협력 등의 분야를 논의했다. /산업부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시장개방과 원산지 기준 관련 상호 규제적 관심 분야와 개방 가능성을 타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전략적 산업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도 함께 협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신흥시장이지만,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256억 달러로 유사한 경제 규모인 아세안(ASEAN)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개선협상을 통해 전통적인 시장개방은 물론 양국 간 공급망과 산업협력을 포괄하는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만공, 부산항 북항 경관수로 새 단장

특수장비 활용 수초·부유쓰레기 수거

부산항만공사가 실시한 환경정비·수질 관리에 힘입어 부산항 북항 경관수로(별빛수로)의 미관 및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그동안 별빛수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장비를 활용한 수초 제거와 부유쓰레기 수거를 시행해 왔다. 특히 수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기 위한 부유식 쓰레기 차단막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DIN(용존무기질소), DIP(용존무기인), DO(용존산소) 포화도가 각각 지난해 대비 66%, 71%, 20% 개선됐다. 해수수질평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 30% 향상된 것이다.

해양수질평가 전문업체의 평가도 나왔다. 업체 관계자는 “주요수질지표의 변화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간 진행한 지속적인 환경개선 조치가 경관수로 수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초와 부유쓰레기 수거, 외부 오염원 유입 관리 등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원도심 배후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유입에 대한 부산시 주관의 분류식 관거 사업(생활하수와 빗물을 따로 분리해 처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환경개선 노력이 경관수로의 수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북항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수로를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AI영상제서 투자·수출까지… 경북, 글로벌 콘텐츠 허브 도약

‘AI·메타버스 영상제’ 내달 개최
국내 3403편, 해외 1587편 출품
투자상담·수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

경북도가 97개국 3403편이 출품된 AI 영상 공모전을 중심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구미·포항·경산에서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를 개최한다. 올해 영상제에서는 시상식뿐 아니라 투자상담, 수출 지원, 산업 전시와 상영·교류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경북도는 1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시·군 관계자와 영상제 조직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프로그램과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AI 영상 공모전 출품작은 지난해 1075편에서 올해 3403편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해외 작품도 72편에서 1587편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영상제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비전 아래 전국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로 출발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기관과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경북도는 공모전 참여 확대와 함께 산업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상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3화째를 맞는 영상제는 개최 도시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언론 브리핑에서 주요 프로그램과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 특성에 맞춰 운영된다. 구미에서는 AI·가상융합산업을 기반으로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고, 포항에서는 AI·VFX 기반 영화·광고 콘텐츠를 다룬다. 경산은 AI와 게임산업을 결합해 지역 게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시상·지원 사업도 마련됐다. AI 영상 공모전 본선 진출작 39편에는 총 1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대상은 2000만원으로, 수상작은 해외 진출과도 연계한다.

경북도는 미니게임 콘테스트 시상 이후에도 후속 지원을 통해 게임기업의 경

쟁력을 높이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수출분야에서는 K-컬처 콘텐츠 제작사 대상 1500억원 규모 펀드 투자상담회와 AI 혁신기업 기술·투자 발표회가 진행된다. 중국 바이트댄스, 일본 세가 등 해외 바이어 20개가 참가하는 경북 게임기업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AI 첨대기업 전시관’ 규모는 지난해 23개사에서 34개사로 확대됐다. 도내 기업 10개사와 메타빌드, ADDD 등이 참여한다. 별도로 도내 게임기업 12개사와 지역 4개 대학이 게임 전시·체험관을 운

영하고 게임 관련 교육·진로 탐색을 청년 인재 양성과 연계한다.

경북도는 영상제를 AI·VFX·게임·가상융합산업을 잇는 글로벌 산업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기존 미국·중국·일본 협력 네트워크를 유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참여 국가를 15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굴한 창작자·기업의 투자·제작·해외 진출과 지역 대학·기업 연계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이날 조직위원 위촉식에서는 세이버파트너스 김세연 대표가 조직위원장, 한국영상콘텐츠학회 양경미 회장이 집행위원장, 식품연구소 노희영 대표이사가 고문, 배우 원기준이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영상제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AI 영상제로 확대하고 K-식품을 비롯한 경북의 K-컬처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영상제를 기반으로 AI·가상융합산업 생태계를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해 경북이 글로벌 AI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황성공원에 문화도서관 건립

경주시는 황성공원 일원에 한수원 자사와 대안사업비 787억원을 들여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가칭)’을 조성한다. 전시·기록·교육·도서관 기능을 한곳에 갖춘 연면적 1만 62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해 2028년 8월 문을 열 계획이다.

시는 지난 14일 공간조성 및 종합운영계획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어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시설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지하 1층 ‘경주기록실’에는 경주의 인물·역사·자연과 향토·족보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신라 과학유산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국립창원대학교

첫 통합 학위 수여식 개최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통합 이후 처음으로 창원·거창·남해 3개 캠퍼스의 학위 수여식을 함께 연다.

국립창원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C WNU가운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통합 학위 수여식으로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전 과정 수여가 함께 진행된다.

이날 다중학사체계 전환의 의미를 담아 거창·남해캠퍼스 전문학사 졸업생 대표 등 학위별 대표자에게 직접 학위를 수여하고, 박사학위는 졸업생 전원에게 수여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설공단

‘에너지의 날’ 광안대교 소등

부산시설공단은 제23회 ‘에너지의 날 in 부산’ 행사에 참여해 오는 21, 22일 이틀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소등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등은 부산시와 부산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에너지의 날 in 부산’의 하나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행사 첫날인 21일 오후 9시부터 5분간, 에너지의 날인 22일에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에 맞춰 오후 9시부터 10분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각각 소등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IFAC 세계대회’ 23일 개최

부산시는 23~28일 벅스코에서 제23차 국제 자동제어연맹(IFAC) 세계대회(IFAC World Congress 2026)가 열린다고 밝혔다.

IFAC 세계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2008년 서울 대회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대회에는 75개국 이상에서 4400여명이 참가 등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 가운데 해외 연구자와 산업 전문가 3600여명이 부산을 찾은 예정이다.

대회 기간 세계적 석학들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학술 세션, 전시회,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하계 전지훈련 중인 선수들 모습.

/목포시

목포시, 선수단 전지훈련지로 ‘각광’

육상·축구·수영 등 10개 종목
전국 5200여명 선수들 발길

목포시가 올여름 전국 각지의 선수단을 적극 유치하며 스포츠 전지훈련 명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목포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하계 전지훈련 기간 동안 육상·축구·하키를 비롯해 배드민턴, 복싱, 수영, 클라이밍 등 10개 종목에서 5200여 명의 선수단이 목포를 찾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8월에도 무더위 속에서 전국 각지 선수단의 전지훈련이 이어지며 목포의 우수한 체육시설과 훈련 여건을 알리

고 있다.

하계 종목에서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대구과학대와 제천상고 등 2개 팀 38명이 국제축구센터 하키장을 찾아 훈련했다. 복싱은 7일부터 14일까지 한국체대, 서귀포시청 실업팀, 광주체고, 대전고 등 전국 15개 팀 200여 명이 다목적체육관에 모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청 육상팀 지도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2026 육상투척 국가대표 후보선수 하계 합숙훈련’을 2년 연속 유치했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100여 명의 선수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목포(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축산 농가 사료자금 291억 지원

융자 100%, 연 1.8% 금리 조건

경남도는 사료값 상승으로 사육이 어려워진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291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지원 규모는 상반기 783억원을 포함해 총 107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 변동으로 사료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는 지난 5월에도 사료비 급등에 대응, 자금 11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상반기 지원액을

늘린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농가와 법인이며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 상환에 쓸 수 있다.

조건은 융자 100%, 연 1.8% 금리로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이며 농가별 한도는 축종별 사육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선정 농가는 서류를 갖춰 11월 9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영

파산·회생·채무조정 현장 상담

부산 시민과 소상공인의 파산·회생·채무조정에 대한 현장 상담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가 본격 운영된다.

부산시는 19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시가 발표한 약 1조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날 협약에 따라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가 첫 운행에 나선다.

희망상담버스는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해 적합한 파산·회생·채무조정 방향을 안내하고,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이동상담버스 인프라와 현장 운영, 심층 법률 상담과 파산·회생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특히 부산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료,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명랑해전’ 내달 울돌목서 다시 만난다

내달 11~13일 명랑대첩축제 열려

2026 명랑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 녹진관광지와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명랑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역의 전통문화와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축제로 한층 강화했다.

축제 첫째 날(9월 11일)에는 진도와 해남 21개 읍면의 주민이 참여하는 출정행렬(파레이드)을 시작으로, 승전무대(진도 녹진)에서 개막식과 함께 울돌목해상을 배경으로 한 ‘융복합 실감형 명랑해전 주제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특수장치와 화포, 무인기 공연

(드론쇼) 등을 활용해 명랑해전의 긴박했던 현장을 실감 나게 재현하고, 가수 김장훈의 축하공연을 더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날(9월 12일)에는 가수 송가인, 예능 등이 출연하는 ‘명랑 트로트 밤’과 화려한 해상 불꽃쇼가 펼쳐져 축제의 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계획이다.

축제 마지막 날(9월 13일)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개그맨 손현수의 빵빠레 노래방’을 운영해 관광객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가수 전유진, 현진우 등이 출연하는 ‘명랑 트롯 한마당’을 통해 3일간의 축제를 화려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

패션·유통업계, 스포츠 팬덤 주목… 유니폼·굿즈 등 점점 확대

형지엘리트 FC서울 등 파트너십
W컨셉 SSG랜더스 컬렉션 출시
이랜드 울산HD 구단 홈웨어 공개

프로 스포츠 경기장이 패션 트렌드와 팬덤 소비의 핵심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2030 세대와 여성 관중의 유입이 늘며 패션·유통업계가 스포츠 구단 IP(지식 재산권)를 활용한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9일 패션·유통업계에 따르면, 패션 기업의 스포츠 후원은 유니폼 제작과 로고 노출을 넘어 최근 스포츠 팬덤을 흡수한 '통합 커머스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구단 공식 용품 및 유니폼 공급 ▲D2C(소비자 직접 판매) 상품 기획 ▲현장 이벤트 ▲오프라인 매장·팝업 운영 ▲각종 콜라버 등 다양한 양상으로 팬덤을 흡수하고 있다.

형지엘리트의 스포츠 브랜드 '윌비플레이'는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 프로축구단 FC서울 등 대형 팬덤을 보유한 구단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단순 제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경기 현장에서 적극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형지엘리트는 지난 15일 FC서울 홈경기장에서 '형지엘리트데이'를, 19일 한화이



윌비플레이 X 한화이글스 브랜드 매치데이 포스터.

/형지엘리트

글스 홈경기장에서 '윌비플레이 브랜드데이'를 진행했다. 응원부채, 배팅 장갑, 선수 친필 사인볼 등 다양한 굿즈 증정과 경품 행사를 열고 현장에서 수렴한 팬들의 의견은 차기 굿즈 개발에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FC서울의 오프라인 매장 '뽀파크'를 재개장해 운영하는 등 경기장을 거점으로 한 소비 접점을 넓히고 있다.

형지엘리트의 스포츠 유니폼 및 MD 상품을 포함한 스포츠 사업 부문 매출도 호조를 보였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형지엘리트 스포츠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41억4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

년 동기(2024년 7월~2025년 3월) 198억6600만원 대비 122% 증가했다. 주요 사업군인 교육 부문 사업 매출(413억9600만원)도 넘어서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의 진입도 거세다. '언더아머'는 지난 3월 프로야구단 삼성라이온즈와 어센틱 유니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선수가 입는 것과 동일한 사양의 유니폼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매개로 선수와 팬 사이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언더아머 서울 브랜드 하우스를 라이온즈파크라커룸으로 재현하고



무신사 x 잔스스포츠 x LG 트윈스 협업 상품 이미지.

/무신사

구매 고객에게 선수 이름과 번호를 새겨주는 마킹 서비스도 제공했다.

인기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아이엠프 스튜디오' 역시 2023 시즌부터 프로야구단 KIA 타이거즈와 협업해 유니폼·잡화를 출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KIA 타이거즈 광주 홈경기 3연전에서 '아이엠프 스튜디오 오 브랜드 데이'를 열었다. 아이엠프 스튜디오 공동 대표이자 래퍼인 빈지노가 직접 시구자로 나서 팬들과 만나며 화제성을 더했다.

플랫폼들도 스포츠 팬덤의 일상 소비를 끌어내고 있다.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지난달 스포츠웨어 브랜드 '미나수'와 손잡

고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의 협업 컬렉션을 단독 출시했다. 경기복과 일상복을 아우를 수 있는 베이스볼 저지, 러닝쇼츠 등으로 구성했다. W컨셉은 지난달 25일 인천 마추홀구 SSG 랜더스필드에서 'W컨셉 데이'를 열고 랜더스 플래그십 스토어 한정 판매도 진행하는 등 직판에 나선 2030 여성 팬덤 접점을 넓혔다.

무신사트레이딩은 지난달 28일 '잔스스포츠 x LG 트윈스' 컬렉션으로 야구장과 일상의 경계 없이 착용할 수 있는 가방·잡화를 출시했다. 프로야구단 LG 트윈스 유니폼의 줄무늬와 구단 상징을 잔스스포츠 시그니처 백팩에 적용한 'LG 트윈스 스트라이프'를 한정 판매했다. 구단 마스코트 '네로'를 활용한 열쇠고리도 선보였다. 출시 당시 잠실야구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잔스스포츠와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판매를 확대했다.

이랜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는 지난달 프로축구단 울산HD와의 협업 상품 출시했다. 스파오는 윈드브레이커와 나일론 셋업, 반팔 티셔츠, 백팩·열쇠고리 등을 선보였다. 특히 스파오의 인기 상품군인 파자마에 울산HD의 정체성을 담아 구단 첫 홈웨어를 공개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rystal@metroseoul.co.kr



metro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더 플라자' 전면 리모델링

서울시 소공 1·2·3지구 개발사업 일환
객실·F&B 등 하이엔드 호텔 재도약
내달 30일 영업중단… 2029년 재개장

서울 중구 소공동의 랜드마크 호텔인 '더 플라자(THE PLAZA)'가 대규모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영업은 오는 9월 30일 자로 중단되며, 내년 초부터 약 3년간 공사를 거쳐 2029년 재개장할 예정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개관 50주년을 맞아 주요 객실을 최고급 스위트룸 중심으로 전환하고 F&B 및 공간 구성을 대폭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더 플라자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약 16년 만이다.

이번 리모델링의 핵심은 최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구조 개편이다. 기존 디럭스 위주의 객실을 최고급 스위트 객실로 재구성하고,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 객실 내 업무 공간과 클럽라운지 규모를 대폭 확장한다.

F&B 분야에서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등 세계적인 파인다이닝을 적극 유치해 미식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더 플라자 리모델링 조감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함께 세계 최대 럭셔리 독립 호텔 연합체인 '더 리딩 호텔스 오브 더 월드(LHW)' 가입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소공 1·2·3지구 통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지구 더 플라자를 비롯해 2지구 한화빌딩, 3지구 한화금융플라자 등 준공 30년이 넘는 노후 건물 3곳의 골조를 유지한 채 일대 공간을 재단장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외벽에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서울시청·경복궁·

덕수궁·청와대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옥상정원이 일반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현재 건축 허가를 완료한 상태로, 건축물 해체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리조트 '안토(ANTO)',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갤러리아 명품관'과 함께 한화그룹의 하이엔드 자산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영업 중단을 앞두고 고객 감사 이벤트인 'Memories of THE PLAZA'도 운영한다. 호텔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사연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아 추첨을 통해 숙박 권 및 PB 상품을 증정하며, 세븐스퀘어, 블랑제리 더 플라자, 주요 객실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개관 50주년을 기점으로 더 플라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이엔드 호텔로 거듭날 것"이라며 "그간 보내주신 고객 성원에 감사드리며 차원이 다른 공간과 서비스로 다시 찾아 뵈실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팔도, 나주공장 자율제조 시스템 도입

AI 기반 생산공정 고도화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주력 생산 거점인 나주공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하며 생산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나주공장은 팔도비빔면, 왕뚜껍, 도시락 등 팔도의 핵심 라면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시설이다. 팔도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품질 안정성과 제조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된 AI 자율제조 시스템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작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는 구조다.

AI가 직접 현장 상황을 판단해 설비 제어까지 수행하는 '피지컬 AI' 기술이 적용됐다. 라면 제조의 핵심인 면(麵) 생산 공정에서 면발 두께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자동 설정하며, 면의 수분·지방 등 주요 성분 및 제품 중량을 관리해 품질 편차를 크게 줄인다.

인력 개입 최소화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팔도 나주공장 전경.

/팔도

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생산 품목을 변경할 때 작업자가 설비 설정값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으나, 새 시스템 도입으로 제품별 조건값이 자동 전환되어 작업 시간이 단축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AI 융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스마트공장 솔루션 기업 엠아이 큐브솔루션이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다. 팔도는 향후 축적되는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나주공장의 생산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22일 '팔라스' 매장 오픈… 단독상품 선보인다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 155㎡ 규모 조성

롯데백화점이 오는 22일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 영국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팔라스(PALACE)' 매장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약 155㎡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매장은 압구정과 홍대에 이은 국내 세 번째 매장이자 전 세계 10번째 오프라인 매장이다.

국내 유통사가 팔라스 매장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팔라스는 2009년 영국 런던에서 레브 탄주(Lev Tanju)와 가레스 스쿠이스(Gareth Skewis)가 설립한 브랜드다.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삼각형 형태의 '트라이퍼그(Tri-Ferg)' 로고와 그래픽을 활용한 후디, 티셔츠, 아우터 등이 주요 제품이다. 다양한 글로벌 브랜

드와 협업 컬렉션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월드몰 매장 개장을 기념해 팔라스와 단독 상품을 선보인다. 팔라스의 스페셜 컬렉션을 비롯해 후드, 재킷, 모자 등 총 18종으로 구성된 월드몰 단독 컬렉션을 판매한다. 롯데월드 캐리터인 로티와 협업한 상품 2종과 로티 협업 상품 1종도 포함됐다.

/김서현 기자 seoh@

던킨, 전 품목 50% 할인

네이버페이 결제시 1일 1회 혜택

던킨은 오는 22일까지 네이버페이와 함께 전 품목 50%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빠르고 간편한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던킨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는 신제품 '말랑 바나나'와

'페이머스 클레이즈드', '먼치킨' 등 대표 도넛은 물론 '하이스 아메리카노', '비타슬러시' 등을 비롯한 여름 음료까지 전 품목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최대 1만원까지 적용된다. 프로모션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매장에서 네이버페이QR(머니포인트카드)로 결제하면 1일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행사 및 쿠폰, 제휴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던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대웅제약, 디지털 헬스 동맹... ‘의료 데이터’ 생태계 구축

2분기 디지털 헬스케어 매출 27% ↑
기업 12곳과 ‘얼라이언스’ 구축
KHF서 건강관리 전주기 포폴 공개

대웅제약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안착시키며 국내 디지털 헬스 기업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플랫폼 전략을 펼친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별도 기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매출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연속혈당측정기(CGM) ‘프리스타일 리브레’, 웨어러블 심전도 솔루션 ‘모버케어’, 스마트 병동 모니터링 시스템 ‘썬크’, 반지형 혈압계 ‘카트BP’ 등의 매출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 협업을 건강 관리 전주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 후케어 등을 다각도에서 해당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HF 2026’ 현장 내 대웅 얼라이언스 부스 조감도.

/대웅제약

이러한 협력 모델은 오는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HF 2026’에서 ‘대웅 얼라이언스’로 선보여진다. KHF는 국내 최대 디지털 헬스케어 박람회로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다. 대웅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웅제약은 예방, 예측, 정밀, 환자중심 등에 중점을 둔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는 물론 환자 일상에서도 건강 관리를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대웅제약은 약 20개 부스 규모의 파빌리온을 운영하며, 씨어스, 스카이랩스, 아이쿱, 퍼즐에이아이, 에버엑스 등 국내 대표 디지털 헬스 기업 12개사와 함께 34회의 전문가 강연 등을 진행한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강력한 병원 영업망, 마케팅 인프라 등에 파트너사의 혁신 기술을 더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핵심 파트너사 씨어스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씨어스가 개발한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썬크의 경우 전국 220개 의료기관, 2만 병상으로 확산되어 있다. 또 씨어스는 대웅제약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기업 아이쿱과도 협업을 맺었다. 씨어스의 썬크와 아이쿱의 CGM Live를 연동하는 등 생체신호 관련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아이쿱의 CGM Live는 환자 혈당을 24시간

추적해 준다.

오는 9월 코스닥 상장을 앞둔 스카이랩스의 성장세도 매섭다. 반지형 커프리스 혈압계 ‘카트비피 프로’는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됐고 전국 2000여 개 병·의원 도입됐다. 또 스카이랩스는 수집된 생체 데이터를 글로벌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 데이터 플랫폼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 중이다.

대웅제약의 이처럼 각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갖춘 기업들과 ‘의료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등 전문 기록과 환자 중심의 일상 데이터를 호환하는 등 성과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KHF 2026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파트너사들과 함께 대웅 얼라이언스의 독보적인 역량을 알리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질병 예측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토탈 헬스케어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美 특허소송 합의

MSN에 제네릭 제품 출시 권리 부여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국산신약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와 관련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인도 제약사 MSN 레보라토리스와 원만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자사 특허 보호 범위 및 관련 조건에 따라 향후 MSN 레보라토리스에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 사항이다. 다만 제네릭 제품의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SK바이오팜

실제 출시 여부 및 시기는 미국 규제 당국 허가 절차 및 양사 간 비공개 합의서 내 조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이던 양사 간 특허 소송은 종결된다. 특허 소송 피고 3곳 중 1곳과 분쟁을 마무리한 것이다. 해당 소송은 세노바메이트 물질특허와 별개인 후속 특허에 관한 분쟁이다.

SK바이오팜은 “오는 2032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에도 엑스코프리 제품에 대한 특허 보호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엑스코프리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다지고 미국 내 장기적인 시장 지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G화학, 차세대 면역항암제 전임상 착수

항암 포트폴리오 확대

LG화학이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로 항암 포트폴리오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

LG화학은 국내 바이오텍 지뉴브로부터 도입한 항체·사이토카인 융합체 ‘GNV205’ 전임상 연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GNV205는 ‘PD-1’ 항체와 면역신호 전달 물질(사이토카인)의 한 종류인 ‘인터루킨-2(IL-2)’를 합친 신약 후보물질이다. 암세포 특유의 산성 종양 미세환경에서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설계됐다. 정상 조직에까지 영향을 주는 전신 독성 리스크를 차단하고 면역 치료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기존 면역항

암제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발생한 암환자를 위한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G화학은 국내외에서 전방위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항암 분야에서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GNV205 역시 국내 바이오텍의 유망 후보 물질에 대해 글로벌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장하는 사례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지뉴브와 ‘GNV205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선급금을 지급했고 향후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조건부 마일스톤, 판매 로열티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CJ온스타일 150개 브랜드 참여 ‘FW 패션쇼’ 개최

CJ온스타일이 가을 패션 수요에 맞춰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약 15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2026FW 패션 쇼케이스’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쇼케이스는 ‘새로운 스타일을 켜다’를 주제로 약 3주간 3개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

1주차 ‘스타일 온’은 21일부터 28일까지 자체 브랜드(PB)와 글로벌 라이선스 브랜드(LB)의 신상품 론칭 방송을 집중 편성한다. 21일 지스튜디오, 25일 셀럽샵 에디션, 28일 바니스 뉴욕 신상품을 선보인다. 셀럽샵 에디션은 쇼케이스 기간 팬츠 전문 브랜드 ‘디오브르(D’OEUVRE)’를 새롭게 선보인다. 셀럽샵 에디션은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8% 성장했다. ‘더엣지’는 FW 시즌을 맞아 배우 신혜선을 공식 모델로 발탁했다.

바니스 뉴욕도 FW 시즌 신상품을 선보인다. 바니스 뉴욕의 올해 상반기 의류 주문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잡화 주문액은 156%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LF 아떼, 립·선케어 앞세워 매출 2배 ‘썰충’

‘립 글로이 밤’ 누적 매출 100억 돌파

LF는 자사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 the)가 립케어와 선케어를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론칭한 아떼는 기초부터 색조까지 전 제품에 대해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소비자 반응을 반영해 사용감과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떼의 올해 상반기 국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일 사용하는 립케어와 선케어 제품의 판매 확대가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립케어 대표 제품인 ‘어센틱 립 글로이 밤’은 식물성 보습 성분을 80% 이상 함유하고 입술 볼륨 개선과 주름 케어 기능을 적용한 제품이다.

어센틱 립 글로이 밤은 올해 8월 기준 누적 판매량 52만개, 누적 매출 100억원을 넘어섰다.

선케어 부문에서는 무기자차 선크림과 선 에센스, 톤업 선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무기자차 선크림에는 자



LF 아떼 ‘립 글로이 밤’ 12호 루비(Ruby) /LF

외선 차단 성분을 얇고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기술과 스킨케어 성분을 적용했다. 해당 제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3% 증가했다.

톤업 선크림은 피부 톤 보정과 자외선 차단 기능을 결합하고 손에 묻히지 않는 쿠션 형태를 적용했다. 올해 1월 군마트(PX)에 입점한 이후 판매가 늘면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떼 선케어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떼는 하반기에도 립케어와 선케어를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와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GS샵, 모발관리 수요에 전기식·뷰티 ‘불티’

건기식 주문액 133% 증가

GS샵에서 건강기능식품부터 트리트먼트, 두피 앰플까지 모발 관리 관련 상품 판매가 늘고 있다.

19일 GS샵에 따르면 올해 1~7월 모발 건강기능식품 주문액은 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억원보다 133% 증가했다. 2024년 10월 모발 건강기능식품을 처음 선보인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주문액은 약 8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표 상품인 ‘에버폴라겐 스킨&헤어’는 누적 주문액 24억원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모발 건강 가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했으며 피부 보습과 자외선 케어, 모발·관절 건강 기능을 함께 담은 제품이다.

GS샵은 모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말 ‘대원제약 모발 콜라겐’과 ‘유한양행 모구락’을 추가해 관련 상품을 총 6종으로 확대했다.

뷰티 부문에서도 모발 관리 상품 판매

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GS샵의 모발 관련 뷰티 상품 주문액은 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151억원보다 12.7% 늘었다.

‘헤드스파7 트리트먼트’는 같은 기간 약 70억원의 주문액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올해 처음 판매한 ‘이지두 탈모 앰플’의 누적 주문액도 30억원을 넘어섰다. 기존 샴푸와 트리트먼트뿐 아니라 두피 앰플 등으로 모발 관리 상품 수요가 세분화되는 모습이다.

GS샵은 관련 수요를 반영해 모발 뷰티 상품군을 확대한다. 오는 20일 오후 9시에는 이탈리아 헤어케어 브랜드 ‘다비네스’의 리벨링 샴푸와 앰플을 선보인다. 두피의 유수분 균형과 모발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GS샵에서 단독 판매한다.

이어 오는 29일 오전 11시 50분에는 ‘릴리브 골드 두피 앰플’을 선보인다. 두피에 직접 사용하는 앰플 형태로 탈모 증상 완화 가능성을 갖춘 제품이다.

/김서현 기자 seoh@

23thkepik 전력산업기술기준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2026 KEPIC-Week

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



2026. 8. 25.(화) - 8. 28.(금)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

전력산업계 최신 기술동향과 기술기준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정보교류의 장

주최 KEA 대한전기산업연합회
Korea Electrical-Industry Association

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찬 전력산업계

지원 GWT 강원관광재단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상웰라이프와 라이프케어 협력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대상웰라이프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대상웰라이프 본사에서 통합 라이프케어 영업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객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보험 보장 수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웰라이프의 헬스케어-건강데이터 역량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보장분석·FP 전문상담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현대해상, '소비자보호헌장' 새롭게 제정

현대해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높아진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 중심의 업무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지난 1996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포한 '고객만족헌장'의 정신을 계승하고,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헌장을 마련했다. /현대해상



중기중앙회·세무사회,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지원 및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를 적극 홍보하는 등 고객에게 노란우산 가입을 보다 편리하게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파마리서치, 국가대표 선수단 건강관리 지원

파마리서치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단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18일 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달 품목은 전문의약품부터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총 10종이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은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인사 ◆공정거래위원회◇과장급 전보 △기업거래정책과장 송명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장급 전보△전략기술육성과장 김태규
◆기획예산처◇신규 임용 △장관 정책보좌관 김병조

부음 ▲박종숙씨 별세, 김현경(팬스타그룹 회장)씨 장모상, 강병수 PSXB동산 대표이사·순명·은명·진명씨 모친상, 서지연씨 시모상=19일 오전,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20일 15호실로 변경), 발인 21일 오전 9시30분, 장지 광주공원묘원. 010-5462-6811.

예탁결제원, 연 18억 지역사회·혁신기업에 투입

2023년부터 연평균 17.8억 출연
부산 대학생 직무교육·장학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오피스텔 15채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마다 약 18억 원을 사회공헌과 혁신기업 지원에 투입하며 지역 청년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 등 장기·지역밀착형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사회공헌 및 혁신기업 지원 출연액은 연평균 17억8300만원이다. 2023년 23억400만원, 2024년 15억7200만원, 지난해 17억4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15억4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대학생에게는 금융·증권 직무교육과 장학금을 지원한다. 'KSD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증권 오픈캠퍼스'는 2019년 5개 대학 35명으로 시작해 올해 12개 대학 60명이 참여했다. 부산지역 대학 IT·상경계열 학생에게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19억8000만원의 장학

삼성·LG, 경남 수해지역 가전 수리

거제·통영서 침수 가전 특별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가전제품 점검과 수리 등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현장에 특별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는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통영 일대에서 침수 가전제품 점검과 수리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부터 경남 거제시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

팀'을 파견했다. 둔덕면사무소 인근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세척과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침수 피해 주민이 이동형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접수하면 엔지니어가 가정을 방문해 제품을 점검한다.

LG전자도 지난 18일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특별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수해 복구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과 제조사에 관계없이 침수 가전 제품을 무상 점검하고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BNK금융, 거제 수해복구 '구슬땀'

임직원 100여명 장평·고현동 찾아

BNK금융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BNK금융그룹은 19일 그룹 임직원 100여 명이 거제시 장평동과 고현동 일대를 찾아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택 등의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매장과 주택 등을 찾아 토사와 폐기물을 정리했으



BNK금융그룹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BNK금융

며, 주변 환경을 정비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풍피두센터 한화, 야외정원 첫 프로젝트

김윤신·신미경·오묘초 작가 참여

풍피두센터 한화가 미술관 내부에 머물던 예술 경험을 야외 정원으로 확장한다. 세계적인 조경가 피트 아우돌프가 설계한 정원에서 자연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풍피두센터 한화는 오는 9월 미술관 야외 공간인 '63아우돌프가든'에서 첫 정원 프로젝트 '채겨지는 것들(Imprinting Time)'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한국 여성 작가 김윤

신과 신미경, 오묘초가 참여한다. 작품은 식물과 계절, 한강변의 바람과 햇빛, 빗물 등 외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김윤신은 나무 형태를 금속으로 떠낸 채색 조각으로 자연의 물성과 신체 움직임의 표현한다. 신미경은 비누로 만든 천사 조각이 점차 닳고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 시간과 소멸을 탐구하며 오묘초는 식물과 신체가 결합한 듯한 조각으로 자연과 과학,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

/원관희 기자 wkh@

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생활장학금 장학생 460명을 선발하고 27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주거와 경제교육을 제공한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오피스텔 15채를 지원하고 종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예탁결제원을 포함한 부산 소재 9개 기관은 2018년부터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에 총 98억5000만원을 출연했다. 예탁결제원의 누적 출연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올해도 1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일자리오픈기업과 사회적기업에는 증권대행과 발행등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등 7개 서비스의 수수료를 감면한

다. 2018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감면액은 약 28억5500만원이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2021년 출범한 'KSD 혁신창업-스케일업 지원 펀드'는 200억 원 규모의 K-크라우드펀드와 50억원 규모의 지역 벤처투자펀드로 구성됐다. 크라우드펀딩 기업과 부·울·경 소재 혁신창업기업 등에 초기·후속 투자금을 공급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밖에도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브랜드페스타 후원, 장애인 고용시설 제품 구매,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이어가며 지역인재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순당, 추석 앞두고 '차례주 빚기 교실'

내달 5일 화성 '박봉담'서 진행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술을 직접 빚어보는 '2026 추석 차례주 빚기 교실 인박봉담'을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술북 합문화공간 '박봉담'에서 열린다.

이번 차례주 빚기 교실에서는 햅쌀로 무리떡(백설기)을 만든 뒤 누룩을 섞어 빚는 전통 차례주인 '신도주(新稻酒)' 제조법을 배운다. 참가자들은 인

당 1.5리터 이상의 차례주를 직접 빚게 되며, 이를 집에 가져가 약 2주간 발효시키면 추석 차례상에 올릴 근사한 차례주가 완성된다.

단순 빚기 체험 외에 우리술에 대한 다채로운 교육과 비교 시음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순당의 대표 차례주 '예담'을 시음하며 우리 고구려청주와 일본식 청주의 차이점을 직접 비교해 보는 시간이 포함된다. 참가 인원은 2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명절 차례주 문화 보급을 위해 정상이보다 할인된 2만 원(대학생 1만 원)으로 책정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식진흥원, 28일 '한식콘서트' 개최

거창한국수 김현규 소장 28일 강연

'8월 한식콘서트'가 이달 28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이음에서 개최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식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매일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19일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경남 거창의 거창한국수 김현규 연구소장과 김상희 대표가 8월 한식콘서트 강연자로 나선다.

김현규 연구소장은 오랜 시간 국수를 만들며 재료와 반죽, 제면과 건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국수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온 명인이다.

이번 한식콘서트에선 김현규 연구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
/한식진흥원

소장이 오랜 시간 국수를 만들며 얻은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국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수 한 그릇의 맛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방문객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김연재 기자 kys@

카카오벤처스, 1인 창업가 한데 모은다

내달 템프서울 개관해 개발 지원

카카오벤처스가 1인 창업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창업자 공동체를 만든다. 카카오벤처스는 창업자를 위한 물입 공동체 공간 '템프서울(tmp Seoul)'을 오는 9월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템프서울은 '솔로파운더'가 일정기간 한 공간에 모여 각자의 제품 개발에

몰두하는 공간이다. 숙박을 전제로 한 합숙형 공간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해진 기간 함께 일하며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간명은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임시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 '/tmp'에서 따왔다. 창업자들이 일정기간 밀도 높게 제품을 만들고 이후 각자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임시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았다. /최빛나 기자 vitna@

있어야 할 것이 없는 화개장터



김승호의
시선

“현지인도 안가는 장터엔 뭐하러 갔느냐.” 지난 광복절 연휴를 맞아 무엇인가에 끌려 화개장터에 갔다. 가수 조영남씨가 불렀던 그 화개장터가 궁금해 지리산 자락에 사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는 길에 잠시 발길을 돌렸다. 촌로들이 갖고 나온 산나물, 채소, 과일 좌판이며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고 장돌뱅이의 신명나는 모습이 연출되는 활기찬 시골 장터의 풍경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상상은 화개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깨졌다. 산나물, 약초 등 지역 특산물에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진열된 모습이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포장지속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 바탕의 글씨까지 모두 한 사람이 써서 붙인 듯 보였다. ‘통일’과 ‘획일’은 다르다.

어느 가게를 봐도 똑같았다. 장터에 특색은 없었다. 화개장터라는 상징에 끌려 관광객으로 처음갔던 그곳에 기자가 머문 시간은 고작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 볼 것도, 살 것도, 먹을 것도 없었다.

화개장터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시장에서 파는 특산품들을 모두 한 곳에서 공급한다는 말도 들리더라. 어쨌든 현지인들은 화개장터엔 안간다. 관광객이나 오는 그런 곳이 됐다”고 말했다.

화개장터를 관장하는 하동군청에 전화를 걸어 물었다. 담당 공무원도 가게마다 똑같은 제품 포장지에 대해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아쉬워했다.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서울올림픽이 열린던 1988년 당시 나왔던 가요 화개장터의 후렴구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 난 지금의 화개장터는 아쉽게도 장터의 정취가 완전히 사라졌다.

‘야앳마을 하동 사람 앳마을 구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상징이 됐던 영호남의 ‘화합’도 사라진지 오래다. 실제로 현재 화개장터에서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공장옥(가게) 74개소 가운데 호남 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단 3곳이다. 한뼨 2곳이던 시절도 있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탐리. 화개장터는 분명 경상도 땅에 있다. 그래도 옛 화개장터엔 누구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하동 뿐만

아니라 구례, 광양, 순천, 남해 등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함께 물려들었다.

오일장이던 화개장터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설시장으로 변모했다.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장날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불난리, 물난리를 겪고 복구하는 과정에선 압점 상인 선정을 놓고 잡음도 적지 않았다. 호남 상인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들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가 과열음을 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경상남도가 2022년에 펴낸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화개장터에 대해 시장 기능을 상실했고, 일시적 관광 경유지로 쇠퇴하고 있어 공간적·문화적·기능적 대안을 발굴하고 상권과 관광기능 재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시절이 변해 화개장터에서 호남, 영남의 화합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치자. 그런데 과연 화개장터의 ‘장터’는 지킬 수 없었을까.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에 진정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느낀 건 그 풍경을 바라본 속 좁은 나그네 기자 한명뿐이길 바란다.

/bada@metroseoul.co.kr

200년 빈의 도자기와 삼성 광주의 변신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얼마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도자기 브랜드 헤렌드 매장에 들른 적이 있다. 1826년 시작한 헤렌드는 올해 200주년을 맞았다. 매장 직원은 요즘 접시뿐 아니라 손바닥만 한 장식품을 찾는 고객도 많아졌다고 했다. 식문화가 달라지면서 제품도 변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변화를 보며 다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광주에 2400억원을 들여 새 생산라인을 짓는다. 1989년 광주사업장이 문을 연 이후 37년 만의 대규모 투자다. 2028년 가동할 새 라인에서 만들 제품은 냉장고도 에어컨도 아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냉각수 분배장치(CDU)다.

광주는 오랫동안 삼성 가전의 주요 생산기

지였다. 생활가전 중심이던 생산 영역이 데이터센터 냉각 장비로 넓어지는 것이다.

만드는 제품은 달라져도 기반이 되는 기술은 맞닿아 있다. 가전과 데이터센터 공조 모두 열을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탑재한 AI 서버는 발열이 커 공기만으로 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냉각수를 이용해 열을 빼내는 액체냉각의 중요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가전에서 쌓은 공조 역량에 지난해 인수한 플렉트그룹의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이 처한 상황과도 맞물린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2분기 출범 이후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부품 원가 상승이 수익성을 끌어내린 반면 AI 수요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사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한 회사 안에서 AI 호황의 명암이 엇갈린 셈이다.

반면 공조에서는 AI 확산이 새로운 수요

를 만든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어날수록 냉각 장비 수요도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선점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LG전자는 지난달 600kW급 CDU로 국내 기업 최초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받으며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의 광주 라인이 가동되는 시점은 2028년이다. 빠르게 커지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2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이번 투자를 눈여겨볼 이유가 있다. 삼성 광주는 37년간 쌓아온 제조 역량을 버리는 대신 새로운 수요에 맞춰 생산 영역을 넓히는 길을 택했다.

200년을 이어온 헤렌드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만드는 대상을 달리해왔다. 삼성 광주사업장도 생활가전을 만들어온 경험 위에 AI 냉각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더한다. 오래된 제조업의 경쟁력은 과거에 무엇을 만들었느냐보다, 쌓아온 기술로 다음에 무엇을 만들 수 있는냐에 달렸는지도 모른다.

/koogija_lee@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0일 (음 7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구설수와 언행을 주의하세요. 60년생 움지 않은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72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도움을 얻습니다. 84년생 이성관계에 신중하세요.



소

49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으니 욕심은 금물. 61년생 스스로부터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73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로랑어

50년생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2년생 눈앞의 이득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74년생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잡하지 않습니다. 86년생 일이 많고 바쁜 하루입니다.



도끼

51년생 현재 추진하는 일에 결과가 있습니다. 63년생 부부, 이성운이 갈라니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75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87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하루입니다.



조

52년생 여행이나 외출은 미루는 게 좋습니다. 64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곧 해결됩니다. 88년생 주의의 말보다는 본인의 판단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뱀

53년생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5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77년생 일이 뜻대로 안 풀리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89년생 무난하고 평탄한 하루입니다.



말

54년생 명예와 인기가 모두 좋습니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집니다. 78년생 부부나 이성운이 좋고 사업방면에도 호소식이 있겠습니다. 90년생 일에 대한 마무리와 말조심が必要です.



양

55년생 지금은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67년생 성실해 추진해 온 일에 보람이 있습니다. 79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어려움을 빠져나오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의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닭

57년생 유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직장운이 풀리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개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될 것입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다투기 보다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7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3년생 운이 좋으니 원한된 일을 추진하세요. 95년생 동료와 협력도 잘되고 일도 잘 풀립니다.

김상회의四季

우연과 필연



개인의 비극 또는 행운을 보다 보면 그 일어난 일들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의아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 또한 사소하거나 우연스러운 사건이 발미가 되어 국가 간 전쟁이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1차 세계대전 역시 유럽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갈등이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작은 도화선을 계기로 건잡을 수 없이 확산하여 벌어진 전쟁이지 않던가? 어느 한 명의 민족주의자의 총격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황태자가 사라 예보 방문 중 암살을 당하여 원래는 국지적인 작은 충돌에 그칠 수도 있었으나 결국은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며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전쟁 이후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태동하여 궁극적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공산화된 러시아를 필두로 전 세계는 냉전 구도로 이어지게 된다.

이 영향은 우리 한반도에도 직결된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는 탓에 일본으로부터 광복하는 계기도 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아무도 관심 없는 나라였기에 신탁통치로 넘어 가게 된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영국 외무성 극동국의 한 관리의 “한국은 영국 왕실 근위병의 유골 한 토막만 한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보고했을 정도였다. 당시에 한국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은 자치의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해방해 줄 수는 있지만, 독립시켜 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은 뒤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채택되어 한국은 해방과 더불어 독립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라는 기사를 한 신문에서 보았다. 이러한 일이 어디 우리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일이겠는가? 어떤 조건의 작은 차이가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화를 낳는다는 ‘나비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음을 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7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심리·학력·가정’ 복합위기 학생 528명 지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통해 지원받은 학생 전년비 4.7배 늘어 학교 밖 지역기관 연계 등으로 도움

학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교육지원청과 지역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본격화하고 있다. 심리·정서부터 가정환경, 기초학력까지 여러 어려움이 겹친 학생을 학교 밖 전문 기관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6월 11개 교육지원청의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학생은 52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11명)과 비교해 4.7배로 늘었다. 지난해 연간 지원 학생 334명도 이미 넘어섰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심리·정서, 기초학력,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기관이 연계해 지원하는 제



서울시교육청 용산 청사.

도다. 올해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됐다.

지원 수요는 심리·정서 영역에 집중됐다. 전체 지원 영역 가운데 심리·정서가 41%로 가장 많았고 가정 문제·아동학대·학교폭력 등 기타 영역이 28%, 기초학력

10%, 학업중단 8%, 경제지원 7% 순이었다. 학생 수로는 심리·정서 380명, 기타 256명, 기초학력 93명, 학업중단 72명, 경제지원 68명 등이다. 한 학생이 두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중복 집계됐다.

지원 과정에서는 학교 밖 기관과의 연계가 가장 활발했다. 전체 연계 지원 가운데 자치구 주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기관 연계가 45%를 차지했다. 교육복지센터가 25%, Wee센터 14%, 교육지원청 내 다른 부서와의 협력이 12%, 학습진단 성장센터가 4%였다.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는 전화 이용이 많았다. 상반기 접수 912건 가운데 유선 접수가 587건으로 64.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지역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되는 ‘학맞통 SEN콜’ 연결은 292건이었다.

실제 지원 대상에는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 학생들이 포함됐다. 잦은 결석과 자해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한 학생은 교육지원청과 지역 의료기관의 연계로 주 1회 전문 진료와 심리상담을 지원받았다. 이후 등교 의지가 높아지면서 학업중단숙려제 상담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또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과 ADHD, 공격적 행동, 잦은 교실 이탈 등을 함께 겪던 학생에게는 Wee센터와 교육복지센터,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정서행동치료와 보호자 양육코칭 등을 지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지원 학생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윈스톱 지원체계 구축, SEN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윈스톱 지원 체계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촘촘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수험생 91% “수시지원 대학, 아직 결정 못해”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3주 앞뒤 상황·적정·안정 배분이 최대 고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3주 앞두고 수험생 대부분이 지원 대학 6곳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은 6장의 절반인 3개 이하만 정한 상태였고, 지원 조합을 짜는 과정에서 ‘상향·적정·안정’을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큰 고민으로 꼽혔다.

19일 진학사가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예정 수험생 7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나머지 91%는 아직 지원 대학을 모두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정한 원서 수를 보면 ‘2~3개’가 40.2%로 가장 많았다. ‘4~5개’는 37.6%, ‘아직 하나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0.1%, ‘1개만 결정했다’는 3.1%였다. 3개 이하만 결정했거나 아직 한 곳도 정하지 못한 수험생을 합치면 전체의 53.4%다.

아직 6개 원서를 모두 결정하지 못한



지난 7월 2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별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67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상향·적정·안정 지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돼서’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판단하기 어려워’가 25.7%, ‘9월 모의평가를 치른 뒤 결정하려고’가 25.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교나 학원 상담 이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응답은 7.4%, 학생부가 아직 나오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1%였다.

우연철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원 후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마지막 6장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제는 지원 대학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후보군을 상향·적정·안정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합격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합격했을 때 진학할 의향이 있는 대학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상향 지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도 합격 가능성을 확보할 카드가 있는지 함께 점검하면 6장 각각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공공기관 기능·조직·사업 재검토

단순 조직개편·인력조정 넘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실행력 강화

고양시가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사업 전반을 재검점하는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혁신은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민선 9기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시는 6개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해 조직·인력 운영과 주요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기관별 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정책 기능이 현재 행정환경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원점에서 재진단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은 조정하고 정책적 중요성이 커진 분야에는 인력과 역량을 집중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양시 공공기관 혁신방안 보고회’ 진행 사진

시는 민선 9기 주요 과제인 교통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소통혁신·안전혁신·경영혁신을 3대 축으로 정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 12일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방안 추진 보고회를 진행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기도, 지방정부 가축방역 ‘최우수’ 선정

AI 예방, ASF 선제 방역 추진 중장기 가축방역 종합대책 등 성과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지방정부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의 가축방역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시책의 방역 효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

업 등 창의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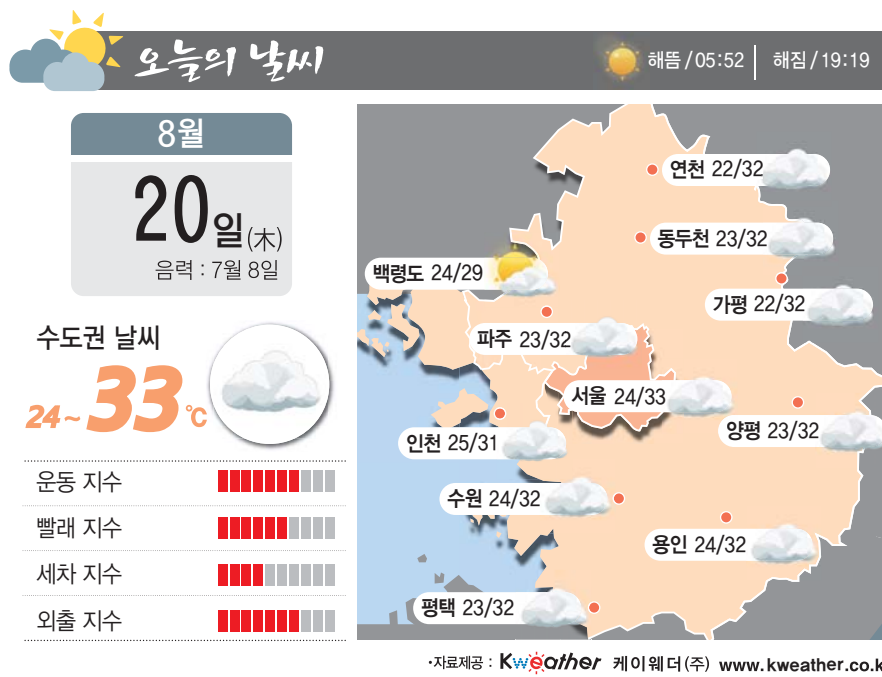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오리 조기출하 및 사육제한, 농가에 철새 이동 유도, 구제역 예방 집중 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전담조직 운영 등 선제적 방역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경기도형 중장기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과 재난형 가축전염병 4중 진단체계 구축, 현장 의견의 중앙정부 제도 개선 연계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한 현장 방역 관계자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경기도의 가축방역이 곧 국가방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고, 28일 전국 시도 구제역·립피스킨윅크숍에서 경기도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 미국 전쟁 확대 시 유럽 내 미군 자산 타격도 고려”
/사진 뉴시스
▲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3일 보류…카니 “주요 과제 여전”

▲中 7월 청년실업률 17.9%로 급등…11개월 만에 최고치
▲中샤오미, 메모리 가격 상승에 2분기 조정 순이익 43% ↓

▲日 여야 의원단 내주 방중…다카이치 ‘대만 발인’ 후 처음
▲日 지바현 기록적 폭우에 거리 방치 차량만 2천 700대 확인



패션·유통업계
스포츠 팬덤 주목
유니폼·굿즈 확대
L1

metro®

Life

대웅제약
디지털헬스 동맹
플랫폼 전략
L2



밥그릇 대신 잔에 담아... 발효기술로 '쌀의 품미' 빛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서울장수 막걸리

‘쌀 미(米)’ 자를 풀어서 쓰면 ‘여든 팔(八)’과 ‘열 십(十)’, 그리고 다시 ‘여든 팔(八)’이 된다. 쌀 한 톨이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농부의 손길 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힘들게 밥상에 오르는 쌀이지만, 국내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국가데이터 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5년 기준 53.9kg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47.7g으로, 밥 한 공기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처럼 식탁 위 ‘밥’으로서의 쌀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기류는 다르다.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202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류 및 식품 업계가 국산 쌀을 활용한 원료 전환과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소비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주 업계가 보리쌀증류주 원료를 100% 국산 쌀증류주로 전환하는 등 쌀 소비 확대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00년 가업의 깊이, 100% 국산 쌀과 특허 기술의 만남

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대표적인 술을 꼽으라면 단연 막걸리가 으뜸이다. 그중에서도 국내 막걸리의 대중화와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은 1962년 설립된 서울탁주제조협회다. 오랜 역사와 우수한 제조 기법을 토대로 서민의 애환을 달래온 서울탁주제조협회는 1996년 산하법인 서울장수주식회사(이하 서울장수)를 통해 ‘서울장수 생막걸리’를 선보이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막걸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장수는 밥상 위에서 외면받는 쌀을 ‘즐기는 문화’로 전환하며 국산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 왔다. 대중성과 품질을 고루 갖춘 서울장수의 대표 라인업은 쌀의 다채로운 변신을 증명한다.

‘장수 생막걸리(흰색라벨)’는 2010년 국산 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 효자 상품이다.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해 신선한 탄산감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자랑한다. 유통 과정에서 도살아



1 서울장수 막걸리 라인업. (왼쪽부터)달빛유자, 장수 생막걸리(흰색 라벨), 월매, 장홍삼 장수막걸리, 월매 쌀막걸리 캔.
2 국내 최초 살균 막걸리 ‘월매쌀막걸리 캔’.
3 젊은층을 겨냥한 ‘달빛유자 막걸리’

/서울장수주식회사

막걸리 대중화·역사 이끈 대표브랜드 국산 쌀 소비 감소 속 소비촉진 앞장

100% 국산 쌀로 빚어낸 막걸리 개발 신선한 탄산에 부드러운 목넘김까지 저온숙성 발효, 유자·꿀·홍삼 접목 등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채로운 라인업

첨단 스마트 시스템 갖춘 제조공장 자체 연구소 운영... 엄격한 품질관리 프리미엄 효모균 ‘보올라디’ 적용해 국내 농가와 결합... 상생 모델 확장

숨 쉬는 효모를 담아내어 소비기한을 14일로 엄격히 관리하며, 갓 지은 밥처럼 가장 신선한 상태의 쌀 품미를 전달한다.

‘월매 쌀막걸리’는 국내 최초의 살균 막걸리다. 100% 국산 쌀과 저온숙성 발효공법을 적용했다. 1L 대용량 PET부터 휴대성을 높인 캔 형태까지 라인업을 다변화해 장기 보관과 야외 활동에서의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젊은 층과 여성 소비자를 겨냥해 빚어낸 히트 상품으로는 ‘달빛유자 막걸리’가 있다. 국산 쌀 막걸리 베이스에 전남 고흥산 유자와 과즙과 국내산 벌꿀을 더해 상큼하고 달콤한 감칠맛을 완성했다.

국산 쌀 베이스에 농협한삼인의 6년간 홍삼 분말을 더한 프리미엄 라인업 ‘장홍삼 장수막걸리’도 있다. 저온숙성 발효 기술을 통해 홍삼 특유의 씹싸름한 풍미와 쌀의 구수한 맛을 조화롭게 구현했다.

◆첨단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

서울장수가 수십 년간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첨단 제조 시스템과 철저한 품질 관리 역량에 있다. 서울장수는 서울 내 6개 제조장(구로, 강동, 서부, 도봉, 성동, 태릉)과 함께 2010년 국내 막걸리 업계 최대 규모로 건립된 충북 진천공장을 운영 중이다.

진천공장 설립 당시 서울장수는 발효 공정의 자동화, 원료의 공기 이송 방식 등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다. 이에 더해 서울 6개 제조장의 공정 개선을 추진하며 쌀 증자(蒸子) 방법, 발효 온도 및 기간의 표준화, 데이터 분석 기반의 품질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어느 지역, 어느 공장에서도 생산하든 균일하고 뛰어난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제조장은 원재료 입고부터 발효, 최종 출하 단계까지의 위해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획득해 위생 안전성을 입증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의 46종 전통 누룩 복원 과정에서 발굴된 프리미엄 효모균 ‘보올라디’를 제품에 적극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장수 생막걸리’ 한 병(750ml)에는 최소 750억 마리 이상의 보올라디 효모가 함유되어 있어, 막걸리 특유의 감칠맛과 풍부한 천연 탄산감은 물론 생균 형태의 유익균까지 그대로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자체 연구소의 역할도 크다. 연구소에서는 매주 1회 전 제품을 대상으로 엄격한 관능 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까지 직접 수거·구매해 품질 상태를 다각도로 점검한다. 현장에서 제조나 기술적 변수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마시는 쌀’ 문화 정착 시킨다

이처럼 엄격한 품질 관리와 설비 투자를 기반으로 한 서울장수의 제품 전략은 단순한 주류 판매를 넘어 국내 농가와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국산 쌀을 기본 축으로 고흥 유자, 국내산 벌꿀, 6년간 홍삼 등 지역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국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서울장수 관계자는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막걸리는 밥상이 아닌 색다른 방식으로 쌀을 소비하고,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적인 생막걸리부터 다채로운 취향을 반영한 과일·프리미엄 라인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마시는 쌀’이 가진 가치와 매력을 시장에 알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모든 대회 우승”...AT마드리드 이강인, 내일 말라가 상대 ‘공식 데뷔’
▲축구 4연패·야구 5연패 정조준...골프도 금메달 도전
/사진 뉴스스

▲‘국가대표 미드필더’ 박용우, 3년만에 K리그 울산 복귀
▲‘韓역자 축구 에이스’ 케이지 페어,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 이적

▲송성문, 두 경기 연속 결장...샌디에이고는 5-2로 메츠 격파
▲오타니, 6년 연속 30홈런 달성...다저스, 콜로라도전 진땀승

SAMSUNG

The all-new
Galaxy Z Fold8 Ultra | Fold8 | Flip8
Galaxy AI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좌측부터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입니다.
특정 시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계정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